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당 중 앙 원 회 フレ 로 동

제274호 [루계 제24687호] 주체103(2014)년 10월 1일(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亨 적 로 작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신분이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님 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 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를 로씨야 나호드까 포르마뜨출판사에서 9월 1 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 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 이다»를 메히꼬로동당출판사에 19일 단행본으로 출판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 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의 요지를 로므니아신문 《로므니아 문치또아레》 9월호가 게 재하였다.

조선로동당 불리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9월 18일 인터 네트홈페지에 조선로동당기사진과 함께 글들을 특집하였다.

홈페지는 《김정일령도자의 인민 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 이 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어머니가 자 식들을 위하는것처럼 당일군들이 인 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나날 사람들은 그이께서 지니 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견해와 판점 이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절감하 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기시였다.

인민을 스승으로, 가장 힘있는 존 재로 보시고 그들의 자주성이 실현 된 락원을 일뗘세우는것을 자신의 사 명으로 간주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 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다.

또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였 으며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시 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그리워하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을 어 머니라 부르며 모든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고있다.

홈페지는 《조선로동당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조선로동당기는 조선로동당의 혁 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 상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순 결하게 계승하며 당과 수령의 두리 에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워 조선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조선로동 당의 불굴의 의지와 투쟁정신을 반 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기를 백승 의 기치로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힘 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 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아. 우쑤쁘바예브가 9월 25일 담화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9 년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 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 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에 벌써 독 창적인 당창건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밀고나가시 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 선이 해방된 후 얼마 안되여 조선로 동당이 창건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

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 조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 이 있어 조선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을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부강하 며 자위로 불패인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창건 66돐을 진보적인류가 뜻깊게 경축하였다.

로씨야, 에짚트, 나이제리아인사들 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대로 뛰여난 령도예술과 강인한 담력, 배짱을 지니시고 강성국가건설 과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천만 군민의 투쟁을 백승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선물을 드리였다.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캄보쟈국왕 과 여러 나라 정부, 정당, 단체, 기관 들,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들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여 오거나 대사관들을 축하방문하였다.

수리아, 에짚트에서는 공화국창건 66돐을 의의있게 경축하기 위한 준 비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민주꽁고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그리고 이딸리아 로마청년주체사상, 선군사 상연구소조와 이딸리아-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런대성협회 등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단체들은 담화와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담화와 성명들은 공화국의 창건은 주체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 고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전환적국면 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 하고 공화국의 위력을 만방에 높이 떨쳐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또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세계앞에 실천적으로 명백 히 보여준 조선의 참모습은 인류의 마 음을 세차게 틀어잡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기와 사회주의붉은기 를 높이 들고 긍지스럽고 행복하며 번 영하는 강성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

진 보 적 할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창건 66돐을 경축하는 행

사들이 세계적판도에 펼쳐졌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 단결기구에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내 조 국의 성스러운 력사를 승리와 영광 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이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거행되였다.

인디아전국토론회, 뻬루경축집회 에짚트-조선련대성의 날 행사를 비 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이 해당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광범한 군중의 참 가하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공화국의 창건과 강 화발전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한 래 일을 위하여 그토록 헌신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뜨겁게 굽이쳤다.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 위원장 은 김일성대원수님은 조선민족의 반만 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나 라, 력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 는 불패의 강국을 창건하고 이끌어오신 건국의 어버이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 회 총서기는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될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기네 꼬나크리주체사상연구소조 위 원장은 조선인민이 김일성각하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그이의 건국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라고 격찬하였다.

뻬루사회혁명당 총비서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혁명적인 건 국의 상징이며 공화국의 력사는 단결

히 에 의한 승리의 력사이다. 조선은 비 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단결의 힘으

로 대국들과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단결의 빛나는 귀감 을 창조하신 조선의 수령들의 공적은 참으로 거대한것이다고 찬양하였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 자협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

의 걸출한 수령, 희세의 선군령장, 세계정치원로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 서는 조선을 자주적인 나라로 건설 하신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였으며

우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20세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훌륭 히 계승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 깔루가주 오브닌스크시 부 시장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조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강국 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인민을 모든것 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펼치시는

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소개하는 각국 출판보도물들의 선전활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만민을 경탄시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 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 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 다》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으며 기네 라 쏠리다리뗴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저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단 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

에짜도르 김정일도서관과 에짜도 르주체청년소조, 메히꼬주체사상연구 소,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벌가리아 조선친선협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 협회,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는 뷸레찐들을 발행하여 인민대중중 심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 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끝없이 번영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년유 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공적을 상세히 전하였다.

로씨야, 이란, 수리아, 라오스, 타 이, 먄마,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우루 과이, 메히꼬, 브라질, 도이췰란드 등 각국의 신문, 잡지, 텔레비죤방송, 인 터네트홈페지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의 태양상과 사진문헌들,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항일의 혈전만리 를 헤쳐 조국을 찾아주시고 1948년 9월 9일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 의국가를 일뗘세우신 위대한 수령님 과 그이의 건국위업을 계승하시여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한평생을 소개하였다.

또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며 60여년의 장 구한 로정우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은 선대수령들의 국가건설업적 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는 김정은동지 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갈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를 높이 휘 날리며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 아가는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세계가 우러르는 불패의 강국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렬한 비상한

앞선 과학기술성과도입으로 석탄증산에 적극 기여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성선단방 2.8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 이 받들고 2.8직동청년란광 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높은 실적 을 내고있다.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 과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1 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 자들 200여명이 망라된 돌격 대에서는 파견된지 1년도 안되 는 짧은 기간에 높이 세운 목표 를 원만히 달성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 술적분제들을 기동적으로 풀 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강화발 전시켜야 합니다.》

2. 8직동청년탄광에 파견된 2월 1 7일과학자, 기술자돌격 대는 지금까지 석탄생산에 이바 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성과들을 짧은 기간에 도입하여 은을 내도록 할것을 목표로 조직되였다.

돌격대원들은 탄광에 달려나 간 첫날부터 현지일군들과 해당 단위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

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

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

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

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

차게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

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련일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중

요공장, 기업소들과 주요대상

건설장들에서 련일 혁신적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

동계급은 수천만m³의 박토를

처리하고 35만산대발파를

비롯한 대발파를 련이어 진행

하여 맡겨진 쇠돌생산계획과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LICL.»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밑에 자기들앞에 맡겨진 과제 를 최단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을 내고있는 관성식적재운반설 비의 도입을 맡은 돌격대원들이 앞장에 섰다.

자들과 함께 직접 용접도 하고

터 호평을 받고있다.

3 차원지하정보체계도입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현장기술자 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측량자료와 채굴공정도면자료 에 기초하여 탄광의 전반적인 갱도상태를 3차원적으로 모형 화함으로써 채굴공정설계를 과 학화할수 있게 하였다.

벌리였다. 이미 여러 탄광들에서 큰 은

제관작업도 하면서 낮과 밤이

이들은 탄팡의 기술자, 로동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림으로써 종전의 긁개콘베아에 비하여 제 작원가가 훨씬 적을뿐아니라 설 치하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여러대의 관성식적재운반설비 를 제작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무연탄수평 및 완경사중박층에 서의 수평갱도붕괴식채탄법을 확립하고 석탄채취률을 20~ 3 0% 높이는데 이바지함으로 써 채탄공들과 탄광일군들로부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들은 여러 탄광들의 석탄탐사에서 좋 은 효과를 보고있는 실시간탄성

파-전기종합CT탐사기술을 이 곳 탄광에도 도입하여 탐사구역 에 많은 량의 석탄이 매장되여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또한 탄광에서 리용할 지하수도 찾아 내였다.

2월 1 7일과학자, 기술자돌 격대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발파효률을 훨씬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한것이다.

돌격대원들은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의 적극적인 지 지방조밑에 특별한 투자나 보조 수단이 없이 종전의 중간정기폭 장약에 의한 발파방법에 비하여 발파효률이 현저히 높으면서도 굴진공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끝 분리역기폭장약에 의한 평행식 속빼기발파방법과 나노복합첨 가제로 특성을 개선한 성형폭약 을 연구도입함으로써 1 m당 굴 진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발파 효률을 90%이상으로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편 통기가 잘되지 않아 석 탄생산에 지장을 주고있던 어느 한 갱에 수십차례나 들어가 공 기의 흐름길을 료해한데 기초하 여 원심통풍기의 개조와 설치에 로써 갱막장들에서 제기되는 운

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 을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통기 압력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높 이고 공기량을 몇배로 늘임으로 써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석탄생 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에 의하여 탄팡의 주요설비들에 대한 감시체계도 확립되였다. 돌격대원들은 수천m에 달하

는 갱막장들을 매일과 같이 오 가면서 주요설비들을 료해하 고 실정에 맞는 감시장치를 설 치하여 탄팡의 생산종합지령 실까지 국부망에 의한 자료통 신과 자료기지화를 실현하였 으며 막장단위들과 생산종합 지령실사이에 화상 및 음성통 신에 의한 전자회의 및 지령체 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탄 광에서 생산지휘를 보다 신축 성있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 바지하였다.

차바퀴를 밀폐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 되였다. 돌격대원들은 종전보다 베아 링수명을 3배로 늘이고 그리스 겨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잘 짜

소비를 1/3로 줄일수 있는 많은

탄광의 기술자들과 함께 탄

반작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돌격대원들은 탄부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막장소공 구인 유연축천공기와 동발톱을 개발도입하여 천공작업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이였으며 휴대용단거리 무선지체발파기를 도입하여 도 화선을 비롯한 많은 자재를 절 약하면서도 발과작업을 안전하 게 할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돌격대에서는 묶음 동발에 의한 쌍갱도채탄법, 막 대동발몰탈주입기, 석탄분석설 비자동조종장치도입을 비롯한 20여건의 돌격대과제를 훌륭 히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탄광의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2. 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 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 소의 책임일군들이 2월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의 사 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물심량면 으로 잘 보장해주었으며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해당 부서의 일군 들은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그 들이 맡겨진 돌격대과제를 앞당

고들었다. 본사기자 려명희

가을걷이전투장에 선전선동력량을 총집중

황 해 남 도 당 위 원 회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 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

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 경제 선동의 화력을 협동벌에 집중시 켜 가을걷이에 떨쳐나선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업근로자

들,지원자들의 정신력을 총폭

발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가을걷이전투에로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 는 경제선동사업을 짜고들어 진 행해나가고있다. 부서에서는 선 전선동력량을 가을걷이전투장에 집중시키기에 앞서 시, 군기동예 술선동대들의 경연을 조직하였 다.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을 당면한 가을걷이전투에 로 적극 떠밀어줄수 있게 대본 들을 수정보충하고 선동대원들

의 기량을 높인 다음 좋은 경험 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기동예술선 동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 가도록 하고있다.

동을 잘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예 술선동대원들을 잘 준비시켜 협 동벌들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지 원자들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키 는 포전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 고있다. 가을걷이전투장에서 선 동대원들이 펼쳐보이는 선동시 《그리움의 가을》과 녀성독창

《수령님 몸가까이 모시고싶어》, 혼성 2 중창과 북제창 《벼가을하 러 갈 때》를 비롯하여 격조높은 선동활동은 농업근로자들과 지 원자들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있 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연안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 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호소성 이 강하면서도 감화력있는 선동 대본을 잘 만들고 기동예술선동 대원들의 기량을 높인 다음 협 동벌들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 동을 벌리고있다. 군안의 령도 업적단위들에 나간 선동대원들 은 가을걷이전투에 떨쳐나선 농 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축하 하는 선전선동과 합창《최후승

《땅과 농민》등을 훌륭히 펼쳐 보임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

> 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옹진. 신천, 봉천군기동예술선동대원 들도 기동적인 항일유격대식선 전선동방법으로 기동예술선동대

>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예술단 과 도예술선전대의 예술인, 선 전대원들은 물론 가두녀맹원들 로 기동예술선동대를 무어 힘있

> 는 경제선동을 들이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사 진가동맹위원회에서는 동맹원 들로 선동대를 무어 들끓는 협 동벌들에 나가 혁신자들을 촬영 하여 영예게시판들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 도미술창작사의 창작가들과 시, 군직관선전실의 직관원들도 가을걷이전투장들에 나가 호소 성이 강한 표어와 직관선전물들 을 게시하여 직판선전의 실효를 높이고있다.

>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방송 선전차들과 포전방송기재들을 가을걷이전투장에 집중시켜 농 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위훈

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돌격대원들은 석탄탐사에서 밀폐형탄차바퀴를 제작도입함으 일러마다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 함 경 북 도 의 공장 . 기업소틀에서

철정광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하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힘 과 기술로 3호대형원추형파 쇄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

그치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벨트콘베아, 감속기 를 비롯한 설비들과 부분품들 을 가공하여 김책제철런합기업 소와 고무산세멘트공장을 비롯 한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주고

있다. 청진제강소의 일군들과 로 동자, 기술자들은 조선속도창 조의 불길높이 2년이상 걸려 야 하는 회전로들의 현대화공 사를 10여개월동안에 진행 하여 주체철생산능력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능력이 큰 인 견팔프공정건설을 힘있게 다 그치고있다.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은

어랑천 2 호발전소조업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 차게 벌리면서 어랑천 5호발 전소 잠판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천연원시림을 뚫고 수km의 도로를 개척하 였다. 발전소건설자들은 올해 에만도 2만 4천여㎡의 콩크 리트타입을 진행하며 팔향언 제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혁신의 불길은 도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세차계 타오르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어랑천 발전소건설장과 능력이 큰 돼

지공장건설장, 염분진호텔건설 장 등 도의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건물공사와 설비조 립을 질적으로 진행하며 대상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

을 차지하고있는 서두수발전 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생산에 서 혁신을 일으키고있을 때 청진강재공장의 로동계급은 년간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고 2년분생산계획수 행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무산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매일 수백t의 세멘 트를 생산하며 기세좋게 나가 고있다. 부령합금철공장과 경 성애자공장, 청진스레트공장 을 비롯한 도의 다른 공장들 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을 높이 발휘하며 생산적앙양

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명천지구와 경원지구, 온성 지구의 탄부들이 더 많은 석 탄을 캐내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 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식료공장, 라남영예군인수지 일용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공장들의 로동자들도 생산정 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계획 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힘 찬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청진시 포항중심부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김책시와 길주군, 경원군과 청진시 포항구역, 수남구역을 비롯하여 시, 군, 구역들에서 달려나온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도로개건공사와 다리건설 에 떨쳐나 일자리를 푹푹 내 며 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 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리은 남



애국의 한마음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뜨거운 - 김 정 숙 평 양 방 직 공 장 에 서 본사기자 림 학 락

밝히며 누리에 룡남산이여,선군조선의 미래를

뜻깊은 이 아침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빛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으로 인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대하 되여 흐른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꿈에 도 생각지 못했던 대학생이 된 기 쁨을 오늘도 간직하고있는 첫기 졸업생들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단위들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은 물론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세 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 가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넘쳐흐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8돐! 세상에는 력사가 오래고 큰 규모 를 자랑하는 대학들도 있다. 하지 만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이 수령의 손길아래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대학이 어디에 또 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와 전통, 종합대학이 이룩한 다지시던 그때처럼 오늘도 모교에 고귀한 업적은 우리 혁명의 발전 과 조국건설의 년대기에 아로새겨 져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 란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김일성종합 대학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대학을 명실공히 수령님의 대학, 장군님의 대학으로 서의 품격을 갖추고 강성국가건설 의 혁명인재육성과 교육과학발전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게 한 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러를수록 심장은 세차계 높

수수한 학생복을 입으시고 해솟 는 룡남산마루에 첫 자욱을 새기시 《김일성종합대학의 영광스러운 며 조선을 누리에 떨치실 맹세를 거룩한 모습으로 서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 지금도 추억속에 더듬어보느라면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여나가 는것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 를 높이 받드는 길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 장을 쾅쾅 두드린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세워

화의 나날에도 우리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강화발전되여온 우리의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한 높은 긍지와 이 땅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의 참된 혁명가가 되시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이름있는 대학이 아니라 김일성종합 대학에 입학하시였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얼마나 위대한 령도의 날과 달들 이 룡남산과 더불어 흘러왔던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 보통사람들이 수십 년 아니 한생을 다 바쳐도 오르지

못할 인류지성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시였으며 걸출한 사상리론가,

장군님이시다.

룡남산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될 굳은 맹세를 다지신 때로 부터 4년,길지 않은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사상리론활 동으로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 을 론증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 명사상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 다.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 만 배워가지고서는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현실에서 제 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없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이렇게 강조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 상을 전면적으로 체득하시고 오직 주체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구상 하고 풀어나가시였다.

어은동군사야영의 나날 정력적인 군사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며 주체 의 군사사상리론과 전법들을 종합 체계화하시고 가일층 발전풍부화시 키시여 선군정치의 사상리론적초석 을 더욱 튼튼히 다지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은 참으로 거대한것 이였다.

언제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참판 한 외국의 한 인사가 확언하건대 대학이 김정일동지를 키운것이 아니라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을 키우 신것이다라고 한 말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명실공히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수령님 의 대학으로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 세우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사색과 심혈은 얼마나 컸 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립 50돐 을 맞으며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 게 력사적서한 《혁명발전의 요구 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 하여》를 보내시여 우리 시대 사회 주의교육,대학교육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리론실 천적문제들을 종합체계화한 서한은 대학교육발전사에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기였다.

1 8년전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 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근로인민의 아 들딸들이 마음껏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인 종합대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고 절절히 하시던 말씀이 쟁쟁히 들려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 1 류급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 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렁님의 불멸 의 업적과 종합대학으로서의 영광 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여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이시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 서도 여러차례나 김일성종합대학 을 찾으시고 대학의 물질기술적토 대와 교육환경을 훌륭히 갖추어주 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가 있어 대학에는 최상급의 수영관 과 전자도서관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

지금도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주체 9 9 (2010)년 뜻깊은 태양절을 며 칠 앞두고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판 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소중히 간직되여 있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손색없 는 전자도서관을 마련해주시려 기울 이신 그 모든 심혈과 로고는 다 잊으 신듯 희한하게 꾸려진 도서판의 곳 굣을 돌아보시며 우리 장군님 얼마 나 기뻐하시였던가.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 계의 창조물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후대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 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 의 하나이므로 우리 당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을뿐아니라 오

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 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

진정 김일성조선을 세계에 떨 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맨 앞장에 김일성종합대학을 내세워주시고 나 라의 교육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 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은 여러 교사들과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수영관을 비롯한 각종 교육교양시설 을 다 갖춘 1류급대학으로 자랑떨 치고있다.

새 세대 청년대학생들만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의 심장마 다에 간직된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새겨주며 우리 장군님의 친필이 빛 난다.

《자기 땅에 발을 불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 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리리 보게 하라!

> 2009.12.17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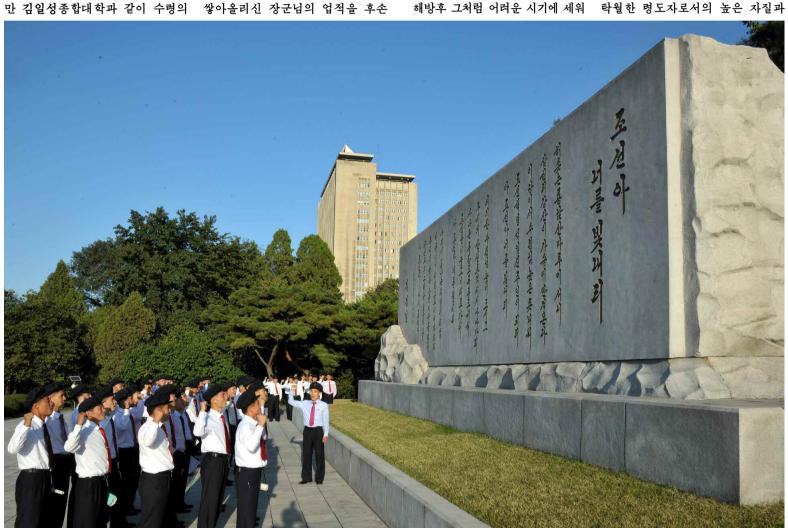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태양 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모교에 계시 며 날로 번영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미래를 축복해주신다.

지난해 대학창립 67돐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 을 담아 김일성종합대학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고 희한한 교육자살림집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대학의 전체 교직 원, 학생들이 한사람같이 펼쳐나 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앞장에서 실현 해나갈 미래의 역군들로 준비해가 는 청년대학생들의 가슴마다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는데서 제일기수가 될 불타는 결의가 차넘친다.

룡남산이여. 선군조선의 미래를 밝 히며 누리에 빛나라!

본사기자 백 영 미



룡남산에 새겨진 숭고한 뜻 가슴에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 김 일 성 종 합 대 학 에 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였다.

김 정 일 동 지 께 서

금 강 산 지 구 를 현 지 지 도 하 신 14 돐 기념행사 진행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 금강산지구 를 현지지도하신 14돐 기념 행사가 9월 30일 현지에서 있었다.

기념행사에는 원동연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황호 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비앞 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 근로자 들파 외국인,해외동포들이 참 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 이 모셔져있었다. 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친필비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금강산혁명사적판을 찾은 그 들은 금강산을 인민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려고 온갖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령 도 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있었다.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려 도 자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 금강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신 14돐 기념집회 에서 진행되였다.

기념집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또한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 세계적인 명산이다》 등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판들 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 를 열어나가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

《김정일장군의 노래》합 창으로 기념집회가 시작되

황호영국장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금강산지구에 **《**2000.9.30

김 정 라는 친필을 남겨주시였다고 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금강산을 세계적인 명승지, 관 팡지로 꾸리기 위해 애국헌신 의 로고를 바쳐오신데 대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은 숭고한 애국,애족,애민의 사상을 지니시고 겨레를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 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수 있는 대용단이였다고 그는

연설자는 위대한 령도자 그룹에 맡겨주시고 제기되는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고 서 금강산판광이 민족의 화해 일

국제관광특구 금강산에서.》 고 말하였다. 언급하였다.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 강산관광사업을 남조선 현대 문제들도 모두 해결해주시면 와 단합에 이바지하도록 걸음 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금강산에서 북남회담과 접 촉, 통일운동단체들의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생사여부조차 몰랐던 북과 남의 혈육들이 상 봉하게 된것도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현명한 령도 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는 토로하였다. 연설자는 금강산관광사업발 전과 조국통일성업에 온갖 심혈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념원인 조국 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 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 불변의 신념이며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 은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였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민족의 단 합된 힘으로 힘차게 투쟁해나 갈 때 이 땅우에는 반드시 통일 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이 일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말하였다.

기념집회는 노래 《우리는 하나》의 합창으로 끝났다. 기념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에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그는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금강산지 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금강산문화회 관에서 예술소품공연을 관람

【조선중앙통신】 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 다에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

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양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회상 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 우고 모든 당세포와 근로단 체조직들에서 그것을 어김없 이 집행하도록 사업을 짜고 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들끓 는 생산현장들에 나가 화선 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 생의 혁명정신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 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 얼마전 청년광구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 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

다》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 를 절대성,무조건성의 정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 ┃ 0,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人 높이 발휘하여 한치의 드림 도 없이 결사관철한 항일혁 명투사들의 투쟁기풍에 대 亚 한 실감있는 그의 이야기는 40 **상**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 주었다.

4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팡 부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살며 일해나갈 때 불가능이란 **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투사들 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 실

풍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 축 령도를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 이 어나? 있 였다. 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실속있게 벌어지고있는 사상 교양사업으로 하여 이곳 광산에 서는 광물생산에서 혁신이 이룩 되고있다.

로농통신원 십 운 섭

정은동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베 이 징

중 국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총서기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평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원 총 리 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 상 위 원 회 원 장 더 강

우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귀국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 선 로 동 당 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 주체103(2014)년 9월 30일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혁명승리의 만능보검인 선군정치에 대하여 뜻깊은 말씀 을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 리가 선군의 기치를 든것은 정 말 잘한 일이라고, 선군정치는 우리 당이 처음 내놓은 새로운 휩싸였다. 정치라고 하시면서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주의를 고 수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도 지 켜낼수 없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안는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제는 우리 나라가 누구도 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새겨

<u>0</u> 준엄한 력사의 시련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

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 가르치심이였다.

접할수 없는 강국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폭과 깊 이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모를것 이다, 그렇기때문에 원쑤들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 더 무서워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도 번영도 있다는 혁명승리의 정깊은 시선으로 일군들을 바 적들이 어쩌구저쩌구 하여도 우 진 리 를 새 겨 주 는 귀 중 한 루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고, 선

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는 반드 시 이긴다는데 대하여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정녕 그이의 말씀은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채 히 성

끝까지 완성하

지금도 우 앞장서 리의 눈앞에 는 백두의 눈

와서였다.

모두가 백두의 혁명정신을 필 승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

세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흔적들을 털어버리고 우리 조국 력사에 위대한 전환의 서막이 열리던 주체 8 8 (1 9 9 9)년 2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

연지구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무봉청년발전소를 돌아보시 고 삼지연읍으로 가시던 길에서

양

세우도록 하시였다.

백두산갈림길까지 걸어가자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백두산지구의 기온은 령하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있었 던것이다.

일군들은 엄혹한 백두산의 눈 보라길이 걱정되여 위대한 장군님께 차를 타고가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백두산의 눈길을 헤치며 걸어보아야 조선 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 를 알수 있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면

영문을 알지 못해하는 일군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가 빛발치였다. 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어쩔 사이없이 선뜻

덩이처럼 떨어지고 산짐승들도 치고 백두산으로 가는 갈림길 오도가도 못하고 슬피 운다는 백두대지의 눈보라는 행군대오 4 0℃를 오르내리고 사나운 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이라도 해보려는듯 더욱 세차게 휘몰 아쳤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길을 앞장 서 헤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시 는 걸음걸음에서 피어린 항 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얼마나 위대 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수령님께서

보라길을 헤치시며 천만군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차를 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는 개척하신 백두의 행군길을 변 드놀지 않는 신념과 의지가 뜨 가를 알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함없이 이어가실 신념의 맹세

> 드디여 위대한 장군님을 날아가던 새들도 얼어서 돌 걸치는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 에 이르렀다.

>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 을 둘러보시며 우리는 수령님께서 백두의 혹한속에서 풍찬로숙하시며 찾아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간 직하고 순결하게 이어나가야 한

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억년 겁게 어리여있는 말씀이였다.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 모신 행군대오는 10리에 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혁명전 통학습의 바람은 조국땅 그 어 디에나 더욱 세차게 불어치고 있다.

휘몰아치는 백두산바람은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이 나라 혁명가들에게 불굴의 정신 력, 투쟁과 전진의 기상을 억세 게 심어주는 사상과 신념의 활

력소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겨주신 백두 의 혁명정신을 영원한 필승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모진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

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청천강전역에 울려퍼지는 당정책결사용위의 우렁찬

작전과 실속있는 지휘로 과 학적인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높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 리고있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이 올 해안으로 발전소건설공사량의 대부분을 성과적으로 해제끼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과학적 으로 방법론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각 려단들에서 다른 단위의 경험을 허심하게 배우며 앞선 공사방법들을 적극 받아들 여 전반적인 공사를 다같이 힘 있게 진척시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가도록 힘껏 뗘 밀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분 일군들은 당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 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현재 각 단위들에서는 구체적 인 실정에 맞게 전투계획을 면 밀하게 세우고 언제와 발전기실 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사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특 히 마지막 남은 구간의 언제공 사를 다그치면서 발전기실하부 설비조립이 진척되는데 맞게 해 당한 콩크리트치기과제수행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이런 실정에 맞게 현장지휘부 정치부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선 정된 한두개의 단위만이 아니라 모든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으며

장 ス 지휘부와 각 려단의 당, 행정일 군들이 모두 참가하여 서로의 공사경험을 충분히 나누며 우점 을 자기 단위 실정에 맞게 널리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공사속도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데서 큰 작용을 하 였다. 실례로 희천 9 호발전소 건설장에서는 이미 좌안의 언 제와 다리보, 상판설치공사, 여 러개의 취수구수문기둥공사를 끝낸데 이어 발전기실하부구 조물공사가 힘있게 다그쳐지

희천 8 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우안의 언제쌓기와 다리보, 좌 안비일류부언제공사가 마감단 계에 들어섰다. 특히 발전소건 설의 중요대상인 발전기실의 하 부구조물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상부건물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고정자와 회전자를 비롯한 마감 설비조립만 끝내면 발전기가동 시험을 진행할수 있는 전망이 확고히 열리였다.

이 단위들의 자랑찬 성과는 모든 참판자들에게 당의 구상을 앞장에서 꽃피울 비상한 자각안 고 조선속도, 제 2의 희천정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올해목표점령은 확고하며 발 전소완공의 날을 반드시 앞당길 수 있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 주는 동시에 공사의 주타격대상 인 언제와 발전기실건설을 더욱

부 휘 의 다그칠수 있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특히 언제건설의 마감공정인 다리보조립에서 다리보의 제작 장소와 시기성을 가장 합리적으 로 선택하는 문제, 권양작업과 제수행에서 급선무로 제기되는 기중기의 기술적준비사업, 발전 기실건설의 순차문제 등 해당한 공정들을 정확히 알고 사전대책 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도록 옳은 방법론을 주었다.

보여주기사업이 끝난 후 각 단위들에서는 언제수문기등타 입에 뒤이어 가물막이구역안에 서 련속적으로 다리보조립을 위 한 공정작업들을 치차처럼 맞물 려 진행함으로써 수십개의 다리 보조립공사를 편향없이 해제낄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 였다. 보다 중요하게는 반복적 인 가물막이를 될수록 줄여 많 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작용을 하 였다. 또한 발전기실건설에서 하부구조물공사에 힘을 집중하 면서도 방수로를 비롯하여 련관 된 여러 구조물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

게 추동하였다. 희천 5호와 6호, 11호발전 소건설장에 대한 참판사업도 참 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희천 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 도려단에서는 우안지대의 언제

《지금 려단은 발전기실건설

에서 앞장서 달려나가면서 나

머지구간의 언제공사과제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와닥닥 해

제끼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전투목표점령의 마지막직선주

로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가

까운 시일안에 발전소건설공

하도록 각 단위 일군들을 힘있

일 군

쌓기에서 큰 성과를 거둔데 이 어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를 다그치면서 날씨조건에 구애되 지 않고 좌안지대로 일제히 전 개하여 년말공사대상이였던 방 대한 비일류부언제의 굴착 및 심벽타입공사를 본격적인 단계 에 올려세우는 자랑을 떨치였 다. 희천 6 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에서는 자기 단위 의 특성에 맞게 6개의 좌안언 제수문기둥공사를 빠른 속도로 밀고나감으로써 불과 한달 남짓 한 사이에 해제끼였다.

희천 1 1 호발전소건설을 맡 은 함경남도려단에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동적인 공사작전 을 펼치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 을 높이 발휘하여 굽은판, 원추 판.작업날개실,회리실 등 전반적인 발전기실하부설비조 립과 타입공사들을 힘있게 다그 치였다.

이 단위들의 공사성과는 당정 책옹위전에서 일군들의 립장과 전개력이 중요하며 돌격대원들 의 정신력이 총폭발될 때 불가 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참판 자들에게 뜨겁게 새겨주면서 일 기조건과 단위실정에 맞게 공사 를 주동적으로 작전하고 밀고나 갈수 있게 하는데서 큰 참고로 되였다.

보여주기사업후 희천 1 0호 발전소건설을 맡은 철도성려단 에서는 언제좌안의 옹벽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데 이어 물 길돌리기공사가 통이 크게 벌어 졌다.

희천4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는 언제우안에서 1대 더 설치 한 대형기중기들에 의거하여 다 리보조립공사를, 좌안에서는 가 물막이와 기초굴착을 다그치기 위한 립체전이 힘있게 벌어져 공사속도가 훨씬 높아지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발전설비

조립과정에 아래부분에서부터 웃부분까지의 기계적중심축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마감하부설 비인 고정륜까지의 조립과 타입 을 원만히 진행한 금야강수력발 전건설사업소와 현대적인 측정 수단을 리용한 건설건재공업성 려단, 실정에 맞게 기계적중심 축의 안내장치들을 새로 창안도 입하면서 발전기실하부구조물 공사를 다그친 평안남도, 철도 성려단과 골재선별,배합비선 정, 진동다짐을 잘하여 구조물 들의 질을 높인 여러 단위 경험 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 하였다.

이것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를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 게 건설할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각 단위 일군들에게 다 시금 새겨주면서 건설물들의 질 적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며 모든 전투원들이 애국충정의 일 념안고 질경쟁의 된바람을 세차 게 일으키도록 이끌어주는데 적 극 이바지하였다.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 였다. 《모든 당원들 근 로 자 들 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 ━ 질화하고 실천에 철저 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분명한 사회주의조국 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 > 투쟁에서 영웅적위훈

의 창조자가 되도록

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각 지

하여야 합니다.》 청천강을 하루빨리 보 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 시킬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 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지원하고있다.

외무성에서는 많은 량의 천막과 비닐박 막, 1 0개의 투광등과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 지고 건설현장으로 달 려와 조선속도, 제2의 희천정신창조투쟁에 떨 **고** 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

었다. 최고재판소 일군들이 여러가 지 지원물자들을 싣고 수백리길 을 한달음에 달려왔으며 국가계 획위원회와 문화성의 일군들은 많은 후방물자와 생활필수품, 직관자재 등을 마련해가지고 건

강

려단지휘관들은 여러 공사장들

이 분산되여있는 불리한 조건에

서도 언제의 기본공사대상인 수

문보관실굴착공사에 힘을 집중

하고 암반 및 토사굴착공사와 콩

크리트치기를 위한 준비사업을

여러 대대 전투원들은 착암전투

동신군, 시중군대대를 비롯한

힘있게 내밀어왔다.

전반적인 언제구조물공사

도

근 로 자 들 일 군 들 과

설장을 찾아 돌격대원들이 공사 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줄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각 도, 시, 군과 여러 부문 일 군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 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평양 시안의 각 구역, 군일군들은 희 천 9 호발전소건설장을 찾아 공 사실태와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 면서 착암기를 비롯한 1 7종에 1만 274점의 설비 및 공구 들과 많은 생활용품, 후방물자 들을 돌격대원들에게 넘겨주었 으며 경제선동활동도 힘있게 벌 려 돌격대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에 앞서 김일성고급당학 교, 수도려객운수지도국, 인민 봉사총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 에서 갖가지 지원물자들을 성의 껏 마련해가지고 희천 9 호발전 소건설장을 찾아와 돌격대원들 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와 도안의 각 시, 군당일군들은 지원물자 를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희천 1 1 호발전소건설장을 찾아 불 리한 조건에서도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돌격대원 들과 함께 일도 하고 정치사업 도 진행하면서 그들의 전투적사

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또한 돌격대원들이 생활하는 각 대대 숙소들을 차례로 돌아 보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 들의 생활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 어주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도 세워나갔다.

평안북도녀맹위원회와 도안 의 여러 시, 군녀맹일군들이 지 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희천 6 호발전소건설장을 찾아 자랑찬 위훈을 펼친 돌격대원 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었으며 평양철도국아래 여러 철도분국 의 일군들이 안전모,베아링, 용접봉, 전동기권선 등 많은 지 원물자를 가지고 건설장을 찾 아와 돌격대원들을 적극 고무 해주었다.

각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힘 찬 경제선동으로 청천강계단식 발전소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청년중앙예술선 전대 예술인들은 희천9호, 6호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 와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연활 동을 벌려 공사장마다 위훈창 조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 지게 하였다.

국립민족예술단과 국립교예 단 예술인, 배우들은 합동하여 경제선동대를 뭇고 건설장에 달려와 여러날동안 공사장들을 오가며 다채롭고 인기있는 공 연종목들을 련이어 펼쳐 돌격 대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 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 문학분과위원회의 작가들도 련 이어 건설장을 찾아와 들끓는 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과 시랑 송활동을 벌리면서 특색있는 경 제선동을 진행하였다.

여기는 불꽃튀는 건 설투쟁속에 날이 저물 고 자랑찬 위훈으로 새날이 밝는 희천8호 발전소건설장이다.

발전기실의 지상건물축조와 언제의 보조립, 좌안구간의 언 제공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드넓 은 건설장에서 지금 평안남도려 단의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 이 올해전투목표수행의 마지막 직선주로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 리고있다.

여기저기서 골재며 버럭을 쉬 임없이 퍼올리는 굴착기들과 련 속 들이닥치는 대형화물자동차 들, 혼합기와 양수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의 힘찬 동음, 일손 마다에 창조의 불꽃을 날리는 돌격대원들이며 대중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으 로 전투장에 약동하는 기상이 한껏 차넘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으과 같이 만쓴하시였다

《건설부분 일군들과 근로 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 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라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 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 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발전기실공사장에서 통장훈 을 부를 시각이 눈앞에 박두하 고있다. 블로크와 혼합물운반이 열기띠며 진행되는 속에 지상 건물축조가 마지막 3m계선을

평 안 남 도 려 단 전 투 장 에 서 이들이다.

가까이한다. 그아래에서는 벌써 발전기실지하부분의 내부벽체 미장이 한창이다. 사방에서 미 장공이며 조력공들의 주고받는 소리가 가락맞게 울릴 때마다 잘 반죽된 미장몰탈들이 서로 서로 엇갈리며 보기 좋게 공중 을 난다.

덕천시대대와 청남구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세련된 조각가마 냥 심혈을 기울이며 한구간한구 간의 벽체미장을 손색없이 완성 해나간다.

이제라도 발전기들이 도착하 면 즉시에 들여앉힐수 있게 만 단의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진 현장을 바라보니 절로 마음이 흐뭇해진다.

려단장 주윤명동무와 돌격대 원들이 왕복 수백리길을 주름잡 으며 짧은 기간에 운반설치한 대형언제기중기가 공사에서 큰 은을 나타낸다.

굴착기운전공 김영일동무가 조종대를 능숙하게 움직이며 깊은 도랑을 째기 바쁘게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현속 들이닥 치며 진흙을 퍼붓는다. 종전보 다 많은 량의 세멘트를 절약하 면서도 스며드는 물을 효과적 으로 막을수 있는 합리적인 가 물막이공법을 받아들이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는

사량의 대부분을 무조건 수행하겠습 니다.》 각종 륜전기재들

이 꼬리를 물며 오 고가는 가물막이전투장에서 우리와 만난 려단정치부장 리종균동무의 신심에 넘친 결의이다.

자랑찬 기적과 혁신속에 시간 이 흐를수록 비약하는 조국의 참모습인양 희천 8 호발전소가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더욱 뚜 렷이 드러낸다.



희천 3 호발 전소건설을 맡 은 자강도려단 의 전투원들이 지난 9월 하

순 남은 공사대상인 언제수문기 둥 두 경간사이의 무넘이구조물 콩크리트치기와 란간설치공사를 끝냄으로써 전반적인 언제구조 물공사를 전부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희천 3 호발전소건설장에서 다 리보와 상판조립에 이어 이 공 사들이 완성됨으로써 앞으로 수 문과 문형기중기설치공사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발전소건설을 제기일안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

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 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 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 01CF. »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대한 대자 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발전 소건설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려 단의 지휘관들은 언제공사를 앞 세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맞 게 물길굴과 취수구, 발전기실공 사를 다그치면서 년초부터 추진 중에 있던 언제의 여러 대상공 사들에 큰 힘을 넣었다. 김선남, 안춘범동무를 비롯한

를 줄기차게 벌리면서 골재채취 를 앞세우고 강물의 흐름이 세 조건에서도 철선을 리용하여 골 재운반을 본때있게 벌리였다. 이 과정에 본격적인 공사계절이 다 가온 4월에 수문보관실콩크리트 치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려단에서는 이 성과로 언제다

리보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돌파 구가 열린데 맞게 개당 수십t이 나 되는 다리보제작과 상판부재 찍기를 적극 앞세워 부재들의 양 생기일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 였다. 이에 따라 려단의 돌격대

단

원들은 권양능력이 큰 기중기가 도착하는 즉시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조립전투를 벌려 30 여개의 다리보와 8 0개의 상판 부재조립공사를 원만히 진행하 였으며 련이어 높은 견고성을 보 장해야 하는 두꺼운 층의 문형기 중기선로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혁신을 일으키

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언제공사

를 섬멸전의 방 법으로 완성할 드높은 열의밑 에 백수십m길이 의 언제구간에

서 란간과 수문운영용사다리형 성, 물살이 센 구간의 마지막무 넘이구조물공사에 계속 박차를 가하였다.

송원군, 장강군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 전투원들은 가물막이 와 굴착, 타입공사를 힘있게 벌 리고 수천토막의 환강절단과 용 접전투를 힘있게 내밀어 짧은 기 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언제구조물공사를 전부 완성 한 려단의 지휘판들과 돌격대원 들은 지금 성과에 자만함이 없 이 방대한 공사과제인 물길굴확 장과 피복, 발전기실공사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알, 고기생산에서 최고생산실적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분명 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흥주닭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들이 9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알, 고기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지난해 6월 강계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 는 흥주닭공장이 큰 은을 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 속에 종금알과 먹이가 최우선적 으로 보장되여 공장에서는 닭알 과 고기가 그칠새없이 쏟아지고 있고 강계시인민들의 식생활은

나날이 유족해지고있다. 종금직장의 여 러 호동들을 꽉 채운 수천마리의 종자닭들의 영양 상태는 대단히 좋 다. 알깨우기작업 반의 로동자들은 정보화, 과학화된 인공부화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 로 다루며 병아리 생산에서 높은 실 수률을 보장하고 있다. 비육직장의 1 0여개가 넘는 호동들에서 수많 은 비육닭들이 자

라고있다. 사양공들은 과학적인 먹이기준표대로 배합먹이와 대용 먹이를 잘 섞어주면서 4 0일동 안에 닭 마리당 무게를 2kg이상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비육 직장의 로동자들은 고기생산계획 을 매달 103%로 넘쳐 수행하 고있다. 비육직장의 고기생산이 늘어나고있는것과 함께 고기가공 직장의 로동자들은 고기와 여러 가지 부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 으키고있다.

알낳이직장의 사양공들은 닭 들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사양판 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알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직장에서는 매일 알생산계획을

105%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수의방역사업에 도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동물성단백먹이, 토착미생 물에 의한 발효먹이를 적극 리 용하고있다. 운수직장과 계량,

분쇄, 혼합 등 배합먹이생산의 정보화, 과학화가 실현된 먹이 가공직장의 로동자들은 맡은 일 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설 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공장의 알, 고기생산정 상화를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수개월분의 먹이를 마련한데 토대하여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 업에 힘을 넣고있다.공장의 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펼쳐나 며칠동안에 공장주변의 먹이포 전들에서 수십t의 먹이를 제때

에 실어들이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더 많은 알파 고기생산성과로 어버이장군님 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강계 시의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 일념이 불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 세 웅



전민과학기 완 강 한 술인재화가 힘 있게 추진되고 있는 오늘 각지

의 도서관들이 응당한 생활력을 발휘하자면 자체의 튼튼한 자료기지가 있어 야 한다.

황해북도도서관에서는 최근 몇해어간에 방대한 자료기지를 구축한것으로 하여 찾아오는 사 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있다. 그러면 도서관운영에서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료기지의

구축과정을 놓고 이곳 당세포사 업을 보기로 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서관을 잘 꾸리고 실속 있게 운영하여 모든 도서관들 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 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로서 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 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은정속에 도서관이 훌륭 히 건설되는것을 목격하면서 판 장 류영순동무는 생각이 많았 다. 건설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 라지는데 맞게 앞으로 도서관을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기 위한 자료기지구축사업을 어떻게 진 척시켜나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날줄 몰랐다.

당시의 실태로 말한다면 이 사업에 망라된 성원은 불과 몇 명밖에 안되였다. 시급히 방대

라는 제기를… 아니 그렇게는 할수 없다. 지금 어디서나 콤퓨

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겠는데 콤퓨터대수도 부족하였고 더더 욱 요구되는것은 콤퓨터전문가 였다. (필요한 성원들을 더 보내달 터전문가들을 요구하고있지 않 는가. 그렇다면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깊은 생각끝에 관장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콤퓨터전문가를 키우는 사업 도, 자료기지를 구축하는 사업 도 우리 도서관자체의 힘으로

하자. 판장의 이런 결심을 당세포에 서는 적극 지지해주었다.

당세포는 이 사업의 첫시작을 잘 뗐다. 사업을 전개하기에 앞 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 관에 대한 참판을 조직하였다. 목적이 있었다. 우선 참판을

통하여 종업원들이 자료기지구 축사업에서 한몫할수 있다는 신 심을 가지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리고 참관사업에 근로단체초 급일군들도 망라시켰는데 이것 은 당원들만이 아니라 근로단체 동맹원들도 자료기지구축사업 에 적극 펼쳐나서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참관사업은 좋은 결실을 가져 왔다. 도서관성원들모두가 콤퓨 터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분발해 나섰다. 점차 콤퓨터를 다루는 그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당세포에서는 이에 맞게 당원 들에게 분공을 주어 그들이 맡 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 면서도 부문별에 따르는 자료기 지구축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 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당세포에서는 뒤떨어진 성원

황 해 북 도 도 서 관 들과의 사업도 잘하였다. 이런 실례가 있다.

사서 김순실동무가 도안의 초 무연탄매장량과 그 리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있었는데 한순간에 수많은 자 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빚어냈 다. 콤퓨터기술수준이 낮은데 원인이 있었다.

같은 종업원들에게 콤퓨터다루 기에 능한 성원들을 붙여주면서 그들이 신심을 가지고 일해나가 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당세포에서는 김순실동무와

이 과정에 집단안에는 사회주 의경쟁열풍과 함께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나래치 게 되였다. 결국 김순실동무는 초무연탄

에 대한 자료를 원래것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도서관자료기 지에 구축할수 있었다. 이어 그 는 지하자원자료, 동식물자료들 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료들도 갖추어놓게 되였다. 이렇게 그 는 혁신자대렬에 당당히 들어 서게 되였다. 그만이 아니라 자 료기지구축사업에서 뒤떨어졌 던 종업원들도 혁신자로 자라

자료기지구축사업에서는 관 장도, 초급일군도, 보장부문 성 원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도서 관의 전반사업을 보는 바쁜 속 에서도 판장은 자기가 맡은 자 료기지구축과제를 매일 어김없 이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을 총 책임진 정보실장 전철웅동무도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났다.

당 세 포 에 서 실천해나갔다.

을 마련하였다.

실장 리춘실동무도 수많은 창의고안과 발명자료들, 도적으 로 진행된 근 30차의 과학기 술축전자료는 물론 도안의 대학 들에서 연구한 과학기술자료들 도 구축하였다. 부원 김봉옥동 무 역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에 이바지하는 교양 자료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료들

이런 실례를 들자면 많고

당세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펼쳐나 홈페지에 도안의 방대하고도 특 색있는 자료를 구축할수 있었 다. 다매체편집물만 하여도 수 백만건에 달한다고 볼 때 그야 말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참가

하였는가를 알수 있다. 하기에 그들은 도서관이 완공 된 즉시로 운영을 높은 수준에

서 할수 있었다. 당세포에서는 대중적기술혁 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홈페지에 대한 열람자들의 수요에 맞게 사업을 보다 통이 크게 전개해

어느 한 홈페지를 개발하고 도서관관리운영의 정보화를 실 현한것이 그 실례로 된다.

나갔다.

도서관의 풍부한 자료기지는 지금 사리원시 미곡리에 건설 된 남새온실의 운영을 비롯하 여 도안의 공업, 농업, 건설 등 각 부문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

성과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도 서 관 을

찾 으 시 였 던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이곳 일군들과 종 업원들은 얼마전에 3대혁명기

수로 되였다. 도서관은 전국의 도서관들이 참가한 과학기술축전에서 우승 의 자리를 차지하였다.성파에 자만을 모르는 이곳 도서관 일 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높은 목 표를 제기하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있다. 이에 맞게 당세 포비서 남정숙동무는 그들의 열 의를 최대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고 있다. 그것은 홈페지를 더 기름 지고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사 업에서 발현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홈페지의 끊임없는 갱신 과 발전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 위한 길에서 한순간도 소홀 히 할수 없는 필수적요구로 되 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은 곧 비약의 나래를 펴고 최첨단을 돌파하는 지름길로 이

어지고있다. 참으로 그들이 구축한 자료기 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 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

이들처럼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 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면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 며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 재강국건설구상이 하루빨리 현 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

州川卫 승고 한 심장에 애국의

령 도 자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당과 혁 명, 조국과 인민앞에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으며 종합대 학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올해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이며 나라의 맏아들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육사 업에서 본받을만 한 경험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는데서 교육내용 개선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 의를 깊이 자각하고 모든 교원 들이 자기가 담당한 학과목들의 교수내용을 개선해나가도록 적 극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첫 분기에만도 4 0여개 과목에 14 0여건의 교수안을 현실발 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완성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에서는 모든 학과목들을 세계일류급수준으로 올려세우 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하겠는가 하는 연 구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우수 한 교원들을 준비시켜 대학적인 련합강좌토론회를 열고 ≪1 류 급학과목평가기준과 방법》, 《자 체학습지도수업에서 얻은 경험 에 대하여》등의 제목으로 토론 을 진행하고 일반화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교원, 연구사들속에 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수방 법을 창조하도록 하고 그 내용 을 가지고 단위별교수경연을 의 의있게 조직하여 이 사업이 더 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도록 하 고있다.

이 과정에 지식창조능력, 창 조적실천능력제고를 위한 교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원양성사업을 중시하고 여

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붉은 감들이 주렁져 보기에도 흐뭇한 감나무들을 비롯하여 온갖 나무들이 우거진 깨끗한 구내길, 산뜻하면서도 현대적인 조형미 를 갖춘 교사들,새 품종의 잔디 들이 시원하게 펼쳐진 운동장…

한마디로 아늑하고 정갈한감 대학, 이것이 을 찾은 우리의

하지만 대학의 하루하루는 평범하게, 조용하게 만 흘러가지 않고있었다.

우리가 2호교사에 있는 정보 과학부를 찾았을 때였다.

어느 한 사무실의 열려진 문 튺으로 열기띠 목소리들이 흘러 나왔다. 알고보니 학부일군들이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 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설계 하고 그 실행을 위한 대책안을 작성하고있었다.

여기에서 모임참가자들의 가 장 큰 판심을 불러일으킨 문제 는 교육인재양성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도록 새 로운 강좌들을 더 내오기 위한 사업이였다.지난 시기의 틀을 깨고 새 세기 교육발전추세에 워준 또 다른 스승들이 있다.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였 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과

방법, 토론과 론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계발시키면서

강의내용을 인식시키는 교수방

법 등이 창조되였다.

대학에서는 수재교육사업도 매우 중시하고있다. 수학부와 물리학부에 수재학과를 내오고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 여 새로운 시험방법도입문제를 제기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지금 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맞게 보다 혁신적으로 강좌들을 , 구성하기 위한 대담한 착상들이 제기되였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있는 교육 과정안에 반영된 교수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불합리한 측면들을 찾아내여 퇴치함으로 써 교육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편성하기 위한 좋은 안들도 련 이어 토론되였다. 일군들속에서 는 교육내용의 정보화사업,지

능교수체계개발사업, 원격교육

의 질개선사업 등 학부의 전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

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학술형인

재와 실천형인재를 더 많이 키

워내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 크

게 도움을 줄수 없는것이라고 생

각되면 자기들이 바로 그 시각

전까지 품들여 만들어놓았던것

도 대담하게 부정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열의로 충만

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

사람들은 자기를 배워준 스승

리의 가슴도 한껏 달아올랐다.

을 평생을 두고 추억한다. 하지

만 그 스승의 뒤에는 그들을 키

적인 사업들도 론의되였다.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관철하 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 고있다.

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대학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모

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

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특히

경제학부에서는 시범적으로 8

개 교실을 전자교실로 꾸리고

1 0여개의 강좌들에 콤퓨터망

을 통해 교육과학자료들을 열람

할수 있게 정보화를 높은 수준

에서 실현하였다. 그리고 매 층

의 중간홀들에 액정TV를 설치

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의 성

적, 최신교육과학자료 등을 내

보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진

또한 생명과학부에서는 짧은

자원환경과학부, 외국어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모든 학부들에서

하기에 우리와 동행한 대학일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

길이지만 이처럼 확고한 승리의

신심에 넘쳐 첫걸음을 내짚었기

에 온몸에 넘쳐나는 청춘의 힘

과 창조의 열정으로 저렇게들 밤

도달해야 할 첨단의 령마루는

아득히 멀다. 그 길에 어떤 애로

와 난판이 가로놓일지 아직은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된다고 경애하는 원수님

가리키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부동한

신심에 넘쳐 첫 자욱을 찍어가

는 이들에게 있어서 첨단은 벌

나라의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

을 지켜선 교육전사들부터 이렇듯

자신있게 첫걸음을 내짚고있으니

이제 머지않아 눈부시게 밝아올

조국의 래일이 우리모두의 가슴을

그토록 흥분시키는것 아니라.

누구도 모르고있다.

써 지척이였다.

는것입니다.》

는 분명 첫걸음 이 분명 첫걸음 그렇다.이들

군인 리성림동무는 이렇게 말하

도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행하고있다.

대학에서는 모든 단위의 일군 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로작연 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여러 토론회들에서 제기된 교원대중 의 창발적인 의견들을 심의, 종 합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책임 일군들이 직접 책임지고 단위들 의 일군들과 능력있는 교원들을 망라한 연구집단을 꾸리고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관철을 위한 대책안작성을 심화시켜나가고

대학에서는 지난 9월에 대학 적인 외국어청취 및 회화경연을 조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 속에서 외국어실력을 높이기 위

그 남모르는 수고를 알아주는 이 많지 않아도 조국의 흥망성 쇠가 바로 다름아닌 자기들의 두뇌전에 달려있다는 비상한 자 각을 안고 사는 이들이기에 그 처럼 아낌없는 정력을 쏟아붓고 있는것 아니겠는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은 수학부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첫걸음, 첨단은 지척

학과목을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

기초, 린접, 전공학과목들을 하나

로 지향시켜나가는 방향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해나가려고 합니다.》

여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경쟁

할수 있는 교육인재들을 더 많

이 키워낼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운 수학부 학부장 리태진동무

의 이야기 또한 우리의 가슴을

이처럼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조종학과목 등 첨단과목들

을 개척하면서 교육내용과 방법

을 혁신하며 다기능화된 교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비롯한 교

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교육학부와 생명과학부.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첨단과목들을 부단히 개척하

쳐 전국대학, 전문학교 정치사상과목교수경연 이 교육부문 일군들과 참가자들의 불타는 충 정과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되였다. 새 세기 교 육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경애하는

>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 육자들이 크나큰 감격 과 보답의 일념으로 부 글부글 끓고있는 때에 진행된 이번 경연은 정 치사상과목교원들의 교 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경 애 하

《깨우쳐주는 교수방 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 LICH. »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이번 전국대학,전문

학교 정치사상과목교수 경연은 각 도교수경연 들에서 우승한 대학, 전 문학교 100여명의 교원들이 참가하여 4 개의 분과로 나뉘여 진 행되였다.경연에서는 지난 시기 정치사상과 목교수교양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도 교환 되였다. 이번 교수경연의 전과 정은 우리 교원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교육전사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정치사 상과목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진 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연 이 성 과 적 으 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 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 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 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

이자》에서 교육내용편성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정치사 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 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라 고 밝혀주시였다. 학생들을 숭고 한 정신을 지닌 혁명의 후비대들 로 키우자면 정치사상교육을 강 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대학, 전문학교

교 수 경

얼마전 김일성종합대

학에서는 여러날에 걸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고

이번 교수경연에서는 교수내용 과 4대교양이 참신하게 결합된 우수한 강의들이 진행되였다. 정치사상과목교수의 생명력은

교수내용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로 일관시키면서 김정일애국주 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 덕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하는데로 지향시켜 학생들을 우 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 우 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군혁명인재들로 키 워내는데 있다. 교수경연에 참 가한 교원들은 주체혁명위업수 행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당정 책적요구를 정확히 교수사업에 구현하고 4대교양을 교수내용 과 밀착시켜 위대성교양, 신념 교양의 원리화수준이 높은 강의 를 진행하였다.

경연참가자들은 학생들의 인 식능력과 창조적실천능력을 높 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수법들을 보여주었다.그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새겨줄뿐아니 라 해당 대학과 학교의 양성목 적과 특성에 맞게 교수교양자료 들을 생동하게 결합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수과정이 학생들에게 기존지식을 전수하 기 위한것으로가 아니라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다. 특히 경연참가자들이 강의 내용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제작한 특색있는 다매체편집물 들은 교수교양적의의가 큰것으 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 을 안겨주었다.

정 치 사 상 과 목

이번 교수경연과정에 교원들 이 많은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경험들이 창조되였다. 평양건축 종합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대학의 영예를 빛내일 결 의를 안고 당조직의 지도밑에 해당 강의에 필요한 문헌조사와 자료연구, 수많은 강좌토론회와 모의강의진행 등 경연준비를 착 실하게 하여 4명이 다 특등, 1 등을 하는 커다란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실력이 높아야 교원들을 옳바 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명 심한 평안남도 대흥군에 있는 대 흥농업전문학교 강좌장 한명실. 김형직사범대학 부강좌장 김정 남동무들은 자신들이 직접 교수 경연에 참가하여 훌륭한 강의를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평성 교원대학 교원 김순희동무는 지 난 시기의 경연들에서 여러차례 1등을 하였지만 더욱 이악하게 노력하여 특등을 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조옥희해주교원대학의 한 교원은 교원생활을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되는 신임교원이지 만 이악하게 노력하여 우승함으 로써 교육년한이 결코 실력을 결 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보 여주었다.

교수경연은 이들처럼 교육자 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모두가 분발해나 선다면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교 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일 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로 하여 대학에

눈부실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 洱 져있다.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도의 인민생활 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높이 에 끌어올리자면 산과 비탈발 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여나가 는데 기여할수 있는 인재후비 들을 질적으로 더 많이 키워

기간에 《동물생물학》, 《유전학》

과목을 비롯한 100여개 과목

의 교수문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준비하였으며 정보화사업을 완

료하고 수많은 실험설비기구의

제작, 구입, 현대화를 실현함으

로써 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높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

사들과 일군들은 새 세기 교육

혁명수행의 선구자가 되여 주체

의 사회주의교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선군조선의 재능있는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

히 키워갈 불같은 열의밑에 낮

에 밤을 이어 피타는 사색과 탐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명 훈

구를 거듭해가고있다.

누구나 알다

싶이 자강땅은

이 끌어올렸다.

바로 이런 사명감을 안고 살 며 투쟁하는 사람들이 강계농 림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 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강성국가건설을

그치고 사회주의분명국의 새 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면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기둥감, 재 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대학의 일군들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대학교육사업을 근본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전망적인 단

계별계획을 작성하였다. 안병록, 전영섭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대학교무일군들, 학부일군들과 지혜를 합쳐 우선 본사기자 한 경 철 대학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

한 통이 큰 작전을 세웠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지식 경제시대인 오늘의 세계농업과 림업발전추세를 민감하게 분석 사실 산골에서는 같은 지역이 한데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를 주도할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지식을 배워주는 새로운 학과들 과 강좌들을 적극 내오려는것이 다.대학의 통신교육체계를 원 격교육체계로 개서하여 전민과 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 에 적으나마 이바지하려는 이들 불타는 열의도 글줄마

어려있다. 대학에서는 또한 교육과 과학 연구,생산의 일체화실현을 신 속성있게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을 교육내용과 방법을 시급 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중심 고리로 설정하고 이 사업계획을

두드러지게 작성하였다. 대학의 농업정보연구실에는 여러명의 연구사들이 몇년동안 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마련한 시, 군들의 지역별유효적산온도 와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토 양분석지표들을 비롯하여 영농 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정보들이

축 구 팀

자료기지화되여있다.

하여 대학에서는 오늘까지의 과 학연구사업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해도 해발고가 서로 다르 고 필지마다 생태환경이 같지 않아 영농공정을 과학화하는것 이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 나 서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내세워주신 자강땅을 더욱 빛내이려는 이들 의 불타는 열의앞에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었다.

불타는 사색과 탐구의 나날 에 산경사지를 수림화, 원림화 하면서도 알곡도 생산하고 풀 판도 조성하여 고기와 젖을 생 산하는 산경사지나무그늘밑 풀판조성방법도 연구완성되였 으며 단백함량이 높은 먹이풀 재배방법과 종자가 잘 발아되 고 작물의 성장도 촉진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농약들에 대한 연구사업도 진행되였다.

해당 지역의 토양과 기온, 해발고 등에 따르는 품종배치 와 씨뿌리는 시기, 모내는 시 기,김매는 시기,비료주는 시 기를 종합적으로 알아볼수 있 이런 든든한 밑천을 토대로 는 귀중한 자료원천이 있음으

서는 현재 착상 관에 전시된 지 -역별특성에 맞 는 우량품종과 갖가지 비료와 농약개발, 육종

방법완성 등의 목표들을 최단 기간에 점령할 통이 큰 계획도 세울수 있었다.

대학에서는 앞으로 도안의 농업부문 초급일군들과 근로 자들에게 더 많은 과학기술지 식을 안겨줄수 있는 참고서들 을 다양하게 만들어 널리 보급 할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2 0 여개의 기본체계와 수백 개의 소제목들로 구성된 수백 페지에 달하는 농업무분 기월 참고서와 기술참고자료수첩들 의 내용을 더욱 풍부화하여 희 천시, 동신군, 송원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의 농장초급일 군들과 농장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사업이 실속있게 진 행되고있다.

자기 고장을 살기 좋은 인민 의 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가 바로 다름아닌 자기들의 두어깨우에 달려있다 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인재 양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 가는 이런 미더운 교육자들이 있기에 자강땅은 더더욱 눈부시 게 전변될것이다.

본사기자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참가자들 至引之门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월 30일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참가 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령도로 이 땅우에 인민체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

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

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그들은 독창적인 체육사상과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 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오스트리 아국제분제 연구쎈러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프란씨스 마우트너-마르크호프소장을 단장 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쎈터대표 단이 만경대를 방문하 였다.

위 대 한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 신 만경대고향집을 찾 은 대표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든 불멸 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 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 밖 에 손님들은

주체사상탑과 릉라곱 등어관 등을 참판하 였다. 【조선중앙통신】

오스트리아국제 분제연구쎈러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중 자 지

10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 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2일(6시-8시), 8일(17시-19시), 13일(2시-

(11시-13시).

청진지방

3일(7시-9시), 7일(23시-24시), 10일(1시-3시), 13일(19시-21시), 18일(8시-10시), 24일(17시-44), 179(74-94), 269(14-34), 299(194), 279(184-204), 309(124-144).

우리 나라 축구선수들이 9월

3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준결승경기에서 이라크팀을 1:0으로 이겼다.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주 ▶ 도권을 쥐고 팀의 전술적의도 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진행하 였다. 적극적이며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는 우리 선수들의 위력 한 중장거리차넣기가 수시로 상대팀꼴문을 위협하였다. 두 팀의 치렬한 공방전이 계 속되였지만 전반전은 득점이

없이 끝났다. 후반전에 들어와 우리 팀은 공격속도를 더욱 높였다. 준준결승경기에서 사우디 아

라비아팀을 이기고 올라온 이 라크팀은 방어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역습을 시도하였다. 여러차례 상대팀문앞에서 머리받기로 득점을 시도하는

등 우리 팀의 공격은 계속되

지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 로 달리고 달리는 우리 선수 들의 맹렬한 경기활동은 관중 들의 절찬과 열렬한 응원을 받 았다.

공격력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 팀은 련 상대팀을 속

위협하였다. 경기는 연 장전으로 이 어졌다. 경 기 시 간

96분경 벌차 기가 조성된 기회에 11번 정일관선수가 이라크팀꼴문 앞 20m지점 에서 상대편선 수들의 보호방 어선 좌측으로 묘하게 찬 공이 통쾌하게 그물 에 걸렸다.

우리 선수들 은 연장전 마 지막까지 공격 속도를 늦추지

아 시 아 경 フI CH 않고 힘차게 달려 경기를 승리 적으로 결속하였다.

우리 팀은 이라크팀을 1:0으 로 이김으로써 결승경기에 진 조선팀은 강하고 정력이 넘치

경기가 끝난 후에 진행된 기 자회견에서 이라크팀 감독은

결 승 경 기

기때문에 반드시 이길수 있었 다고 말하였다.

남자축구 결승경기는 10월 2일에 진행하게 된다.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 귀국

였다.

표단이 9월 30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태형철 조선몽골 친선의원단 위원장, 김성희 최

르. 곤치그도르쥐 부의장을 단 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마니바드 장으로 하는 몽골 국가대회의대 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 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

회안탄광 1 갱 채탄 1 중대

채탄공 조원식동무는 제대되여 탄전으로 달려온 때로부터 34 년동안 석탄증산으로 조국을 받 을 두고 걱정하던 그때 조원식 들어가는 성실한 탄부이다.

【조선중앙통신】 올해 정초 조원식동무네 소대

는 뜻하지 않게 암석층에 맞다

들게 되였다. 누구나 석탄생산 동무는 함마를 틀어잡고 바위를 까내기 시작했다. 온몸을 땀으

를 휘두르는 그 를 따라 온 소대가 떨쳐나섰다. 을 극복하고 첫달 석탄생산계획 을 앞당겨 끝내고야말았다.

로농통신원 박 재 근

로 적시며 함마

활력으로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로세대들 안겨준 생의

영원한 우리가 청춘속에

가을이 왔다.

모스며 금전화가 피여난 들판으로 너울너울 날아든다.봄내여름내 씨앗을 묻고 딲흘려 가꾸어온 자 랑이 무겁게 고개를 숙인 이삭들 에 실려오고 날파 달을 주름잡으 며 혁신과 위훈으로 줄달음쳐온 기쁨이 건듯 들린 가을하늘아래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창조물들 마다에 비껴온다.

위 대 한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선배들을 존 대하는것은 후세대사람들이 마땅 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이며 숭 고한 도덕적의무로 됩니다.》

탐스러운 열매들과 긍지높은 창조 물들을 보며 행복의 씨앗과 함께 헌 신의 구슬땀도 묻어온 보람과 희열 에 넘쳐있는 이 계절 자연에는 가을 이 있어도 이 땅에서 인생의 계절에 는 가을이란 없음을 한편의 노래가 말하여주고있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 고있다. 이니

늙을소냐

황혼기도 청춘!

로년기에도 패기와 활력에 넘쳐 문 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우 리 나라 년로자들의 긍지높은 삶이 러해동안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김유심로인은 세월이 갈수

록 더해만지는 절절한 그

리움을 안고 위대한

모자이크벽화주변관리사

업을 온갖 정성을 다해 진

2006년 11월 모자이

크벽화 《백두산에 오르신

고성군 운곡리에서 사는

맹룡택로인은 마을사람들속

에서 한생 변함없는 애국충

정을 안고 사는 전쟁로병할

아버지, 생활의 거울로 불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날

강도 미제를 쳐부시는 싸움에

서 용맹을 떨친 맹룡택로인은

나이가 많지만 해마다 바쁜

영농시기에 농사일을 돕는것

로산군 봉불협동농장

제 1 작업반마을에 살고있

는 손형만로인은 지난

4 5년동안 누가 보건말

건, 알아주건말건 부림소판

리를 말아 자기의 성실하

땀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오

손형만로인은 년로한 몸

이지만 잠시도 일손을 놓지

없

┓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모신

행하고있다.

세 대 들 의

회령시 대덕리에서 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대로 비껴있다. 그들모두를 가정 산은 산마다, 벌은 벌마다 황금 과 사회의 웃사람으로, 혁명선배로 빚으로 물들고 흰두루미뗴가 코스 아끼고 내세우며 고목에도 꽃을 피 워주는 은혜로운 품에 대한 다함없 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뜨겁게 차 넘친다.

> 어딜 가나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 고 젊음과 열정으로 약동한다. 국제 로인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에 혁명 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워주는 고상 한 사회적기풍이 더 활짝 꽃퍼나는 속에 거리와 마을마다, 공원과 유원 지마다 이채롭고 흥겨운 풍경이 펼 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건드러 진 노래가락과 더불어 구역과 구역 사이, 마을과 마을사이에 치렬하게 벌어지는 배구경기와 장기, 윷놀이 를 비롯한 민속오락경기…

그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전쟁로 병들과 공로자들을 비롯한 혁명 의 전세대들이다. 그들모두의 얼 굴마다에 세월은 가고 몸은 비록 늙었어도 마음만은 영원히 청춘 시절에 사는 보람과 긍지가 한껏 어려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 임지고 돌보아주고있으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이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하나의 사회적흐름으로 되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통적으로 늘어나 로인들의 생활조건 과 환경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 운 년로자들이 전사회적인 판심속에 짧으나 의미깊은 이 말에 인생의 떠받들리우며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 을 누리고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지난 여

를 리에 정중히 모신 그때로

부터 김유심로인은 이른아침

백 두 산 절 세 위 인 들 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모자이크벽화주변판리를 정

성다해 진행하는것으로 하루

전 쟁 로

수십년세월 거름생산과 모뜨

지난해 전승 60돐 경축행

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이 깃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로인

은 평양에서 돌아오자 바람으

해마다 로인은 영양상태

가 그리 좋지 못한 소들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맡아안

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누구

나 욕심내는 부림소들로 자

래우고있다.이 나날 그가

받아낸 튼튼한 송아지만도

을 심고 가꾸어 호박곰을

해먹이고있으며 겨울철먹이

로인은 해마다 많은 호박

로 또다시 영농전투로 끓어번

기, 김매기를 돕고있다.

일과를 시작하고있다.

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 하였다. 시여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 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 배로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절을 맞으며 경 축행사를 큰 규모에서 진행하도록 하시고 전국의 전쟁로병대표들을 평양에 불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온 나라의 관심과 축복속에 격정 과 환희로 끓어번진 경축행사기간 얼마나 가슴뜨거운 화폭이 이 땅우

에 펼쳐졌던가.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참가한 전쟁로병대표들 을 몸소 만나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 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 념을 지니고 전선과 후 방에서 무비의 대중적영 웅주의와 애국주의를 발 휘하여 조국해방전쟁에 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 하는데 크게 기여한 그 들모두를 열렬히 축하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도 전승절경축행사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 진을 찍고 은정어린 생 일상도 받아안으며 끝 없는 기쁨과 행복에 울 고웃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에서 온 나라 천만 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혁명 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

이시며 절세위인들에 의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경축행사 하여 마련되고 이어져오는 사랑과 의리의 세계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 이 없음을 심장으로 다시한번 절감

>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서 년로자 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관심속 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긍 지높은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뜨거운 인간애를 뗘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혁명선배에 대한 태도문제를 혁명에 대한 태도문 제로,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 대한 문제로 보시고 항일혁명투 사들과 전쟁로병들,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로력혁신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혁명 의 전세대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 세워주시였다.

진정 대를 이어 뜨거워만지는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즐기고 청춘시절의 기백과 열정에 넘쳐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년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 행복을 노래 하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세 상에 소리높이 웨친다. 세월은 가도 영원한 청춘속에 우

리가 산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지난해 11월 길주군문화회관 앞 (그 어머니에게는 딸자식이 없다고 광장에서는 어머니날을 맞으며 자식 했지.) 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기둥감들

다음날 아침 군녀맹위원회로 한 녀 성이 들어섰다. 허은주동무였다. 그는 녀맹위원회의 일군에게 용사의 어 머니의 친딸이 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읍에서 수십 리 떨어진 백원리에 자리잡고있는 용사의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

는 김정실녀성의 두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절 친딸로 받아주세 요. 허만복용사의 몫까지 합쳐 제

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김정실녀성 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러나 허은주동무의 눈빛에서 김 정실녀성은 그의 결심이 그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으로 내린 것이 아님을 느낄수 있었다.

이렇게 그는 용사의 어머니의 친 딸이 되였다. 그때부터 허은주동무 는 나이가 많아 일손을 놓을 때가 된 어머니를 위해 온갖 성의와 지 성을 다했다. 식탁에 어머니의 구 미에 맞는 음식을 하나라도 더 올 려놓기 위해 애썼고 그의 생일이나 명절날이면 여러가지 기념품도 안 겨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왼심을 썼다.

지난 시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과 원군사업에 앞장서온 허 은주동무는 올해 건군절을 맞으며 어머니의 몫까지 합쳐 많은 원호물 자를 허만복용사가 복무하던 해군 부대에 보내주었다.

얼마전 허은주동무는 허만복동 무가 복무하던 해군부대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전우애의 세 썼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 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용사의 친 누이답게, 어머니의 친딸답게 참되게 살겠습니다.》

> > 본사기자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 주고있는 평천구역 평천1종합진료소 의료일군들 본사기자 찍음

분 기

충동으로 높뛰기 시작했다. 점, 한

민 위 원

바치고있다. 로농통신원 박희옥

O

변에 백살구나무들을 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껏 가꾸어가고있다. 절절한 그 리움과 열렬한 충정을 안고 사는 김유심로인을 따라 그 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그 리고 온 마을사람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주변을 정중히 관리하는데 자기들의 지성을

식들과 함께 모자이크벽화주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백살 구꽃속에 영원히 높이 모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고싶은 마음을 안고 그는 자

숨 결

8 0 고령의 몸으로 사회주

의협동벌에서 실천행동으로

당과 조국을 어떻게 반들어야

하는가를 깨우치는 전쟁로병

의 애국의 숨결은 새 세대들

의 가슴속에 창조와 혁신의

도 넉넉히 장만하여 추운

날씨에도 소들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충분히 보장하

하나같이 어깨가 벌어진

실한 작업반의 소들을 보며

작업반원들은 물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손형만

로인을 두고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로농통신원 김정호

않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성철

박동을 더해주고있다.

병

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지는 협동벌로 달러나갔다.

위 대 한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야말로 자기들에게 분 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 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 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 니다.》

농장벌의 풍요한 경치를 구경 하며 평양시인민위원회 양로원 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절 로 즐거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 일군의 이야기는 그칠줄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은 정속에 몰라보게 달라진 양로원 에 대하여, 그 은정을 가슴에 안 고 생의 희열에 넘쳐 생활을 락 천적으로 해가는 양로원의 로인 들에 대하여…

우리가 양로원앞에 이르니 로 인들이 꽃받을 가꾸고있었다. 그들은 마치 친자식을 만난듯 반기며 우리를 양로원안으로 이 끌었다.

《사는게 락이고 행복이라

가쯘히 놓인 침구류며 벽장

오.》 오정심로인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들리시였던 호실로 이끌었다.

도 자 들,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를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비롯한 문화기재들,벽에 걸린 사진들…

양 시 인

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 었다.

아늑한 방안에 놓인 모든것들

놀이를 하는 로인들의 모습은 하고 보람찬 로동도 하였다고, 또 얼마나 흥그러운가.

우리는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다른 호실에도 들렸다. 환한 벽에 한상의 기념사진이 정히 모셔져있었다.

전쟁로병인 김치옥로인이 전 승절경축행사의 대표로 참가하 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였다.

자본주의사회같으면 버림받 았을 인생인 자기를 전쟁로병으 로 떠받들어주고 온 나라앞에, 후대들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워 준 당의 은덕을 이야기하며 그 는 눈을 슴벅이였다.

매일같이 물고기며 먹음직스 러운 과일을 받아안을 때마다 양로원의 늙은이들을 위해 마 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목이 꽉 멘다고, 이렇게 나라의 혜택만 받고 보탬을 주 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로 의 보금자리에서 인들이 저저마다 격정을 터놓 았다. 한보비로인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길이

길이 전하며 60청춘, 90환 갑을 노래하겠다고 하면서 한 곡조 뽑는것이였다.

회

올해 한보비로인의 나이는 9 2살이다. 1 1살때부터 지주 집아이보개로 천대와 멸시를 받 한집안식구처럼 모여앉아 윷 아온 자기가 해방덕에 공부도 고마운 제도가 아니라면 어찌

> 인생의 황혼기에도 행복을 누려 갈수 있겠는가고 그는 뜨겁게 말하였다.

은 19살때까지 일본땅에서 피워가는 년로자들, 그들의 모 살았다.

돈이 없으면 제 한몸, 제 한가 정조차도 지켜낼 수 없고 생활의 기쁨도 락도 없 는 자본주의사회 에서 보고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 며 그는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생의 희열을 맛 볼수 있었다고.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행복

보금자리!

양 로 원 을

로 훌륭히 키우고 뜨거운 애국충정으

Oli

0

되

찾 아 서

로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

해가는 어머니들을 비롯하여 군안

의 어머니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

모임에서는 전투임무수행중 장

렬하게 희생된 해군용사의 어머니

인 길주군 백원리에서 살고있는

김정실녀성의 토론도 있었다. 해군

용사들의 묘를 몸소 찾으시여 크

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혁명적전우애에

대한 그의 감동깊은 이야기는 참가

자들모두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덕기풍입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

리를 지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그날 밤 길주군 영남로동자구

4 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허은주

동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

다. 조용히 귀기울이면 영웅이 되

여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벙

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을 생각하

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 같

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

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었

고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해군용사들모두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축복속에 영

생하는 가장 고귀한 삶의 절정에

오르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계가 그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용사의 이름이 허만

복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허

은주동무의 심장은 그 어떤 알수 없는

었다.

었다.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어 마 음껏 깃을 펴듯이 우리 년로자 들도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고 마운 품이 있기에 이렇듯 따뜻 한 보금자리에 삶의 닻을 내리 고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속 에,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 속에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 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 고향이 일본인 배숙요로인 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

습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터치는 고마움 의 웨침, 로동당만세소리를 들

양로원의 곳곳에 슴배인 나 라의 혜택을 페부로 느끼며,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행복의 보금자리에 서 여생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낼 년로자들의 밝은 모습 을 그려보며 우리는 양로원 을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 은 별



우리 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독자의 죋지

20마리가 넘는다.

저는 녕변군 읍에서 범한 영예군인입니다.

고있다

않고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 사랑의 뜻을 받들어가는 길에 자 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끼고 내세워주시 는 영예군인들이 아무런 불편없 이 생활하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 다고 하면서 자주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세우군 하였습니다.

몇해전 7월 뜻하지 않게 내린 많은 비로 군이 적지 않 은 피해를 입었을 때 군의 일

군들은 제일 좋은 살림집을 저의 가정에 배정해주고 생활 필수품들도 보내주면서 안착 된 생활을 하도록 따뜻이 돌 봐주었습니다.

중앙은행 평안북도 녕변지점 지배인 김정옥동무와 종업원들 은 자주 저의 집을 찾아와 생활 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 세라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해 마다 땔감도 보장해주고 명절마 다 많은 영양식품들과 생활필수 품들을 보내주군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 에는 군당위원회의 일군들과 군 려판 지배인 김인옥동무와 종업 원들, 군인민보안서의 인민보안

원들, 읍 112인민반에서 살고있 는 오영애동무의 가정을 비롯하 여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마련한 생활필수품들과 물자들을 안고와 진심으로 축하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사람 못살 자본주의사 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영예군인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고마운 사람들 을 대할 때마다 세상에 둘도 없 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빛내 이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결의를 굳게 다지군 합니다.

녕변군 읍 8 7 인민반 리 대 성



뜨거운 인정미는 집단을 단합 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 용을 한다.얼마전 3대혁명붉 은기를 쟁취한 은률군 금복협동 농장 제 5작업반 당세포가 당적 지도에서 힘을 넣은 문제의 하

나가 바로 이 점이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것 은 우리 당일군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불러일 으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당세포비서 리병철동무가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 5월 어느날 그는 2분 조의 모내기실적이 떨어지고있 는 문제를 놓고 분조장과 마주 앉았다. 분조장은 일부 분조원 들의 가동률이 낮은 문제를 꺼 들면서 이들때문에 높이 세운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 의목표를 수행하지 못할가봐 걱 정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 을 주의깊게 듣고난 당세포비서 는 사람타발부터 앞세우는 그의 그릇된 관점부터 바로잡아주어 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1분조와 대비적으로 보아도 은률군 금복협동농장 제 5 작업반

하였다.

2분조에는 확실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었다. 형편은 2분 조와 비슷하였지만 1분조는 당 면한 영농과업수행에서 농장적 으로 앞서나가고있었다. 분조원 들의 가슴마다에 자신보다 집단 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꽉 차있 었다. 그 밑바탕에는 분조장의 사업작풍이 놓여있었다. 1 8년 간을 분조장으로 일해오고있는 그는 뜨거운 인정미로 분조를 한가정처럼 만들었다. 서로 돕 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이 발휘

자가 되였던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의 직접적담당자 는 농장원들이다. 그런것만큼 초급일군들이 뜨거운 인정미 로 분조원들을 돌보아주며 작 업반농사에서 주인구실을 다 하도록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 켜야 한다.

되는 속에 분조원들모두가 혁신

문제를 이렇게 세운 당세포비 서는 실천적모범으로 초급일군 들을 이끌어나갔다.

자기 집에서 절약한 식량을 생활이 어려운 농장원세대들 에 나누어주면서 나라의 쌀독 을 채우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나가자고 고무해

어느날 2분조 농장원 오동무 의 집을 찾은 당세포비서는 말 께 그가 맡고있는 포전에 나가

하였다.

《물론 분조에 페를 끼치지 않으려는 동무의 심정은 리해 됩니다. 하지만 분조를 자기 집 처럼 생각했더라면 혼자서 속 을 썩이지 않았을것입니다. 사 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집단의 방조도 달게 받을줄 알아야 합 니다.》 당세포비서는 그의 생활을 돌

보아주는것으로 그치지 않았 다. 하루일이 끝난 저녁이면 안 해와 함께 그가 맡은 포전에 나 가군 하였다. 밤깊도록 농사일 을 도와주는 당세포비서의 뜨거 운 인정미는 오동무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그는 불편한 몸 이였지만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 면서 극성스럽게 일하였다. 하 여 분조의 사랑을 받는 혁신자 가 되였다.

2분조의 리동무가 이러저러 한 일로 분조원들의 말밥에 오 르고있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 은 분조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 는 동무인데 본인이 요구하는대 로 다른 농장으로 보내자고 하 였다. 하지만 작업반장 원정철 동무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 았다. 그의 가정에 찾아가 생활 형편을 알아보았고 분조원들과 함께 울타리도 손질해주었다. 하루일이 끝나면 분조원들과 함

당세 포 사업에서 일손도 도와주었다. 이런 일은

어느날엔 가정에서 마련한 식 량과 장화를 가지고 그의 집을 찾았다. 《일만 일이라고 남편없이 아 이들을 키우고있는 동무의 생활

여러번 계속되였다.

을 잘 도와주지 못한 나를 욕해 주오.》 자기를 타매할 대신 오히려 용서를 비는 작업반장에게 리동

무는 말하였다. 《난 반장동무가 왜 우리 집 에 자주 오는지 다 알아요. 분조 원들에게 속을 주지 않고 선입 격을 가지고 엇드레질을 한 날

용서해주세요.》 길을 헛디딜세라 주저앉을세 라 따뜻이 이끌어주는 작업반장 의 진정이 리동무의 마음을 울 리였던것이다.그후 그는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못 다한 일을 봉창하기 위해 하루

에 두몫, 세몫 일하였다. 초급일군들의 뜨거운 인정미 는 작업반원들을 단합시켰고 그 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 한 결의목표실현에로 힘있게 떠

밀어주었다. 온 작업반에 서로 돕고 이 끄는 집단주의미풍이 차고넘

가을걷이가 시작된 지난 9월 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새벽녘에 바람골등성이밭에 나오던 2분조의 농장원들은 인 기척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2분조의 가을걷이가 처지고있 다는것을 알게 된 1분조의 농 장원들이 한발 먼저 나와 가을 걷이를 도와나선것이였다. 앞선 분조는 뒤떨어진 분조를 도와주 고 앞선 농장원은 뒤떨어진 농 장원을 도와주는 미풍이 차넘치 는 가운데 작업반은 가을걷이전 투에서 농장적으로 앞서나가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비 결을 묻는 우리에게 작업반장은 말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뒤떨 어졌던 작업반이 농사도 1등, 군중문화체육도 1등,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과 마을꾸리기에서도 1등, 그야말 로 모든 면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게 된데는 당초급일군들 이 뜨거운 인정미로 농장원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 의목표실현에로 힘있게 떠밀어

준데 있습니다.》 옳은 말이다. 영농실적을 보기 전에 땅을 가꾸어가는 농장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고 뜨거운 인정미로 그 들을 단합시킬 때 집단이 발휘

하는 힘은 무궁무진한것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휘황찬란한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력사적인 10.4선언발표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 마다에서 이 땅우에 자주통일, 평화번영 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함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이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 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며 조국통일 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 족적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오늘의 현실을 목격할수록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나가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민족의 미 래는 휘황찬란하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 욱 억세게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 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은 겨레의 념원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절세의 위인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개척될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의 개척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 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 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절대불변의 의지이다.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

에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 갖 도전을 물리치며 자주통일의 길을 앞 장에서 열어나가고계신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주체 1 0 1 (2 0 1 2)년 3월 판문점이 전하는 력사의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그때 조선반도에서는 참으로 엄혹한 나날이 흐르고있었다. 미제와 괴뢰호전 광들은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 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조선 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있었다.

바로 그 준엄한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판문점에 대한 력사 적인 시찰을 단행하시였다.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 세워져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를 오래도 록 바라보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 시였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4차례나 나 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 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 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무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 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 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 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였다. 위인이 남기는 자욱마다에는 위인의 비범한 뜻과 기상이 비낀다.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와 숨결이 력력히 슴배 여있는 판문점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 의 그날의 자욱자욱은 진정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 시는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애국의 자욱이 였으며 가장 준엄한 시각에 온 겨레의 가 승속에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판을 안 겨준 승리의 자욱이였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청청하늘 에서 섬팡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것 같 아 깜짝 놀랐다. 》,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것 같다. 》라는 보 도들을 현속 날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을 백두산장군의 드센 배짱과 강철의 담력,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의 분출로, 절세위인 의 력사적장거로 대서특필하였다.

한 나라 력사에서 근 3년이라는 기간 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나날들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밝은 미래도 확고히 담 보되여있다는 철의 진리가 새겨진 잊지 못할 나날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며칠 앞둔 주체 1 0 1 (2 0 1 2)년 4월 어느 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 말씀을 하시였다.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 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을 오 로지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 나갈데 대하여 간平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판철하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 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뜻깊은 열 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연설에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 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 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

, 八八》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 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도덕의리와 애국의 뜻이 력력히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통일운동을 새롭게 앙양시킬 방향과 방도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에서 찾으 시였으며 조국통일투쟁이 철저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을 실현하는데 지 향되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극 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 업을 성취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 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라고 하시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 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로 힘있 게 불러일으키는 그이의 신년사를 심장으 로 받아안은 우리 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경탄을 금치 못하 면서 머지않아 이 땅우에 밝아올 자주통

일의 새 아침을 확신성있게 내다보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평생의 념원이며 유훈인 조국통일을 기 어이 이룩하는것은 우리 세대에 맡겨진 숭고한 의무이며 민족사적과제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애국애족의 보폭에 발을 맞추어 북남공동선언의 리 행과 자주통일위업실현에 떨쳐나선 우리 겨레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김향미

두운 재벌과 그와 결탁된 부패무

능한 집권세력에 의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때로부터 적

에서 채택되지 못하고있는것과

, 를수록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지지열기가 더욱 높아가 고있다.

사회연구소의 한 연구 사는 잡지에 투고한 글 에서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은 평화 통일실현을 위한 가능성 름 ,이 충분히 고려되여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의 전제조건들이 강조된 방 안이다. 이 방안은 하나 의 완성된 통일방안일뿐 아니라 그속에 완성된 통일국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통일 간 담회에서 김일성주석님의 련방제 통일방안의 진수를 연구 하는 과정에 이 방안이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최선 의 통일방도임을 재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이 렇게 강조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어 떤 방안으로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는 하나의 강토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두 체제 를 이루고있다. 그런 조 건에서 이 체제를 일단 유지하 면서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 고 교류하는 통일방안은 련방

날이 가고 세월이 흐 제뿐이라고 본다. 런방제통일 방안만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 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말할수 있다. 특히 통일국가는 그 어떤 렬강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는 자주적존엄을 가진 민족국가로 되여야 한다.남녘민중이 김일성주석님의 련방제방안을 열렬히 지지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부산의 한 퇴직교수는 제자들 에게 우리 이남민중은 김일성주석님의 통일방안을 전 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왜냐하면 주석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 이는 강제적방법으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에 기초하여 민족적단결을 강화하는 방법으 로 극복해나가야 하기때문이라 고 힘주어 말하였다. 종교인들 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를 가지고 이남민중치고 련방 제통일방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모두는 민족 의 장래를 위해 편협한 리념 적, 지역적갈등을 버리고 자주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 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성명, 론평, 담화, 론설 등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실현을 위 한 투쟁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 였다.단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 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 적인 로고를 바치시였다고 하 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포옹력과 숭고한 애국애

족의 의지에 의하여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력 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 택된것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6.15 공동선언 발표이후 그 생활력이 크게 과시되고있으며 내외의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있다고 하면 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 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 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인 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 을 게재하였다.

《6. 1 5 공동선언은 그 두번 째 항에서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 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 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 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 다. >고 하여 분명한 통일지향 선언임을 밝혔다. 6. 1 5 공동 선언은 이처럼 조국통일을 최 대한 빠른 속도로 실현할수 있 는 현실적방안을 담고있다. 조 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 는데서 련방제방식외의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 대로 련방제방식에 의한 나라 의 통일을 지향시켜나갈것을 바라고있다.》

본사기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서 련전련승하고있는 우리 녀자축구팀이 남조선팀을 2:1 로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진출 한 소식을 9월 30일 남조선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련합뉴스》, 《MBC》, 《한국 일보》, 《국민일보》, 《통일뉴 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우리 녀자축구팀이 29일 진행된 준결승경기에서 남조선녀자 축구팀을 2:1로 이겼다고

전하였다.

한 인터네트신문은 남조선 녀자축구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북에 대한 공포증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우리 팀은 2010년 광주대회 에서도 북과 맞붙었다. 당시 완패하였다.

4년만의 재대결에서 설욕을 노렸지만 북은 강하였다. 2회 련속 고배를 마셨다.

1990년 베이징대회

(0:7패), 2002년 부산대회 (0:2패), 2006년 도하대회 (1:4패)까지 포함하면 아시 아경기에서만 북에 5련패를 당하였다. 《한국》이 고개를 떨구

었다. 인터네트신문 《노컷뉴스》는 남측 팀이 전반전 12분경에 선제꼴을 넣었지만 36분경 북측 팀에 동점꼴을 내준데 이어 후반전이 지나고 주심시 간에 결승꼴을 내주었다고 전 하였다.

우리 녀자축구팀의 경기성 과에 대해 남조선녀자축구 팀 감독은 북은 《상당히 공 격과 방어의 전환이 빠르고 압박도 강하다.체력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 분이다. 그 부분이 뛰여나 다. 세계대회에 가서도 북측 선수단이 좋은 경기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였다고 신문 은 보도하였다.

체육인대회와 여러 로작들을

통해 체육의 의미를 강조하시

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체육을 전인민적사업으로 내세

이에 따라 북은 체육의 대중

화 및 생활화를 통하여 로동파

국방에 기여하는 인간육성을

이는 김정은시대에도 변함이

글은 계속하여 북이 체육강

국을 목표로 국가적지원을 아

끼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한마

디로 북의 체육은 사상과 국가

적지원으로 무장하였다고 강조

위한 체육정책을 펼쳐왔다.

9월 29일 남조선의 인터 네트신문 《통일뉴스》가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력기선수들이 빛나는

성과를 거둔것과 관련한 글 을 실었다. 글은 북이 이번 대회 력기 종목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 휘하며 금메달만도 총 15개

북의 력기능력은 메달수자에 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번 대회 에서 무려 여러개의 세계신기

고 지적하였다.

이번에 북의 선수들은 하나 같이 사상을 강조하였다.

중 4개를 획득하였다고 밝

록을 수립한데서도 과시되였다

북이 이렇게 력기강국이 된 비결은 무엇인가고 하면서 글 조 선

즉 사상의 힘이 메달을 따게 된 원동력이라는 말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정신력

이라는 말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정신력으로만 세계무 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는것

은 쉽지 않다. 체력조건도 필요하지만 국가 적지원이 충족되여야 하기때문

북이 력기에서 세계강국이 된 배경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북의 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은 사회주의헌법 제55조

증가하고 로인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라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시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1990

년에 진행된 제4 5차 유엔총회

에서는 《국제로인행동 계획실시

와 활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

였으며 해마다 10월 1일을 국

제로인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

하였다.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

~~ (O

O ~~

10 은 다음과 같이 썼다. 에서 《국가는 체육을 대중

> 화,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 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 육기술을 발전시킨다. 》고 규 정하였다.

북에서 체육은 단순한 신체 발달을 위한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사상무장, 혁명과 건설의 기초로 되고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는 체 육기술발전의 의무를 다하고

북은 1948년 정권수립이전 부터 국가체육을 위한 근본리

념을 수립해왔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46년

고 통일적으로 장악통제, 조직집

행해나갈수 있는 기구인 조선년

로자보호런맹 중앙위원회를 내

왔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을 채

택함으로써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며 년로자

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

격히 세우고 년로자들을 존대하

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

건을 보장해주기

조

우시였다.

없다.

하였다.

지 않은 시일이 지났다. 당시 괴 뢰집권세력은 당장 사건의 진상 을 밝히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것처럼 큰소리를 치면서 민심을 기만하였다. 하지 만 지금까지 진상조사는커녕 《세 월》호침몰사건의 해결을 위한 온 전한 법안조차 만들지 않고있 다. 오히려 괴뢰보수패당은 《〈세 월〉호특별법》에 인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것을 한사코 반대하면 서 남조선사회를 극도의 혼란속 에 빠뜨리고있다. 이로 하여 현

괴뢰집권세력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무섭게 치솟고 도처에서 항의투쟁이 전개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세월〉호 특별법》이 여당의 반대로 《국회》

남조선에서 돈벌이에 눈이 어 사태를 해결할것을 강하게 요구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조선집권자는 《립법활동에 개입 할수 없다. 》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를 회피하고있으 며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만나 는것도 끈덕지게 거부하고있다. 얼마전 《새누리당》패거리들을 청 와대로 불러들인 남조선집권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것에 대해 《답답하다.》느 니 뭐니 하면서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세 월〉호특별법》에 대한 양보는 없 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수 없다고 독기 어린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새누 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 가동시키라고 부추겼다. 남조선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야대결이 극 도에 달하고 커다란 정치적혼란 이 빚어지게 된 주되는 원인은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는 반역 《정권》 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내용을 《특별법》 에 쪼아박을데 대한 각계의 요 구를 한사코 반대했기때문이 다. 그런데 이번에 남조선집권 자가 또다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새누리당》을 단독 《국회》운영에로 내몬것은 민심 의 요구에 한사코 엇서나가려는 그의 반역적기질과 파쑈적본색 을 명백히 드러내보인것이다. 집권자의 입김을 받고 살기가

> 오른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지 금 《국회》독판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저들의 립장을 반 영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 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단독《국회》 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빨 리 처리해야 한다는 남조선집권 자의 발언내용이 공개되자 각계 는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 다면 남조선집권자와 《새누 리당》이 《세월》호침몰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과 기소권을 주는데 대해 어째서 그처럼 집요하게 반 대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뒤 가 켕기는자들의 발뺌질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세월》호침몰사건과 관 련하여 반드시 해명해야 할 문제들은 수두룩하다. 사건 발생초기 괴뢰당국에 의한 탑승자전원구조조작보도와 항해관제소의 교신기록조 작,집권자의 조문조작 등 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특 히 《세월》호침몰사건의 기 본혐의대상이라고 하는 청

해진해운회사의 실제소유자인 유 병언의 체포를 위해 방대한 력량 이 동원되였지만 왜 끝내 체포하 지 못했으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가 어떻게 되여 죽음을 당하고 변사체로 발견되였는가 하는 문제, 사건당일 남조선집권 자는 구조에는 관심이 없이 7시 간동안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 을 하였는가 하는것도 밝혀내야 한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세 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한 당국의 발표는 모두가 조작이라고 하면 서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해명할 것을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권과 기 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는 경우 그 수사의 칼날 이 어디로 향할것이며 기소대상 이 누구로 될것인가 하는것은 명백한것이다. 더우기 유병언과 같은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이 청 와대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집

> 권상층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 어 보수집권세력은 불안감을 금 치 못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괴뢰패당은 저

> 들에게 유리한 《〈세월〉호특별 법》을 만들어 위기를 모면하려 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그것 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지금 남조선 각계는 《새누리당》의 전 횡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보 수《정권》을 폭로단죄하는 대중 적투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 다. 민심을 등지고 반역행위만 을 일삼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가 난파선이 되여 침몰하는것은

>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세계적으로 로인인구가 급속 히 늘어나고있다. 전문가들은 2050년에 가서 인구 5명당 1명이 60살이상 나이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인구로화현상은 몇개 나라나 지역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세 계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에서 다같이 나타나고있다. 여기에서 도 발전도상나라들이 가장 빠른 로화속도를 기록 로인문제해결을

수가 1 000 만명이 넘는 나라는 1 5개인데 그중 7개가 발전도상나라들이 다. 이러한 현실은 로인들에 대 한 사회적관심을 높일것을 요구 하고있다.

하고있다.세계

적으로 로인인구

지구상에서 인구로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지난 세기 중엽부터이다. 그때 당시는 몇 몇 일부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인구로화문제가 제기되였다. 그 러던것이 20세기 말엽에 이르 러서는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 들에서도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로인인구비률이

브라질대통령 딜마 바나 로우

쎄프가 9월 24일 유엔총회 회

의에서 연설하면서 세계경제발

전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역할

그는 지금 국제통화기금이나

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들에서는 이날을 계기로 여러가 지 행사들을 조직하여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그들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 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년 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 하여 보람있는 생활을 누려나가도

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왔다. 년로자보호사업이 활성화되고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확 대되면서 이 사업을 국가의 중요 한 사회적시책의 하나로 틀어쥐

역할 강조

들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충분

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

이와 같은 현상은 유엔안보리 사회안에서도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러한 불평등을

다고 말하였다.

위하여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현재 조선년로 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는 년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국제기구 들과 폭넓은 교류와 협조를 긴밀 히 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로인의 날 을 맞으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예술공연, 체육경기와 유희오락경 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년로자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편의와 생활환경 을 보장하는 사회적분위기를 고조 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장 황철호

혐 앙골라와 잠비아가 9월 25일 국 방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여러건 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 서 9월 23일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이 관광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 OF O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지나온 과거사는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조선

【조선중앙통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법 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에게는 날이 갈수 록 더욱 톡톡히 새겨지는것이 있다. 그것 이 바로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파쑈적인 식민지통치와 폭압만 행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 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악독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일제의 《총독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세계지도우 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 고 조선민족을 멸살시킬것을 노린 가장 야 만적이고 략탈적인 식민지폭압통치였다.

1910년 8월 강도적인 방법으로 불 법비법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 는 그해 10월 1일에는 《조선통감부》를 식민지파쑈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로 간 판을 바꾸고 우리 나라에서 포악무도한 식 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총독정치》는 동서고금

쑈폭압통치였다. 일제는 우선 우리 인민의 반일의식을 말살하고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확립하 는데 광분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 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 다. 이것은 폭력과 강권으로 조선을 지배 통치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야 만적인 식민지노예화정책의 산물이였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악독한 파

일제는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군 대, 헌병, 경찰을 비롯한 각종 폭압기구들 을 수많이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의 초보 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짓밟았다.

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 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라고 떠벌이면 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 고 학살하도록 하였다. 1918년에 일 제에 의한 조선인검거건수가 1912년 에 비해 1 0배이상 늘어난 사실은 일제 가 당시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 학살만 행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을 똑 똑히 알수 있게 한다. 이 시기 일제는 헌 병 및 경찰기구의 우두머리들에게 법적 수속이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선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 까지 주었다. 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 적인 폭압정책의 강행은 우리 인민을 말 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식민지노 예로 만들려는 잔인무도한 범죄행위였 다. 일제는 전조선땅을 파쑈적폭압과 공 포정치의 살벌한 분위기로 뒤덮었다.

1919년에 들어와 일제는 날로 높 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에 겁을 먹 고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 고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19 1 9년 8월 일제는 《조선총독부 관제개 혁에 관한 조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당 시 일제는 《관제개혁》을 통해 《총독》을 현역무관으로만 임명하던것을 철폐하고 문관도 될수 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폭력 통치를 은페하였으며 《총독》의 륙해군통 솔권을 병력사용의 청구권으로 바꾸는 놀 음을 벌리였다. 또한 헌병경찰제도를 《보 통경찰》제도로 바꾸고 도장관을 도지사 로 둔갑시키였으며 지방경찰권을 그의 권 한하에 넘기는 모략을 꾸미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마치도 《총독》정치에서 무슨 변동이라도 일어나는듯이 가장하였 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 도로 개편한 후 경찰기관들의 수가 종전 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

특히 일제는 종래의 로골적인 헌병, 경찰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경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헌병 보조원을 수많이 두고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 살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 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갖은 악독하고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파 쑈폭압통치시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민주주의 적자유와 권리마저 송두리채 빼앗고 갖 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민족을 말 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일제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 련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다. 또한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 선사람들을 제놈들의 침략전쟁터들과 고 역장들에 내몰아 무참한 죽음과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잔인무도 한 식민지《총독정치》의 후과로 우리 나라 는 말그대로 파쑈적폭압과 살인만행이 지 배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암흑

천지, 인권불모지로 전락되였다. 일제는 《총독정치》시기 인적자원뿐아 니라 수많은 자연부원도 깡그리 략탈해갔 다. 우리 나라의 비옥한 토지를 강탈하고 울창한 산림들을 마구 도벌하였으며 민족 산업의 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지 어 가정들에서 사용하던 놋그릇, 놋수저 는 물론 녀자들의 비녀까지 빼앗아갔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일제의 물적자원략 탈행위는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일 제는 농촌에서의 대량적인 략탈을 위해 《산미증식계획》이라는것까지 내놓았다. 《산미증식계획》이란 조선의 비옥한 토지 에서 거두어들인 쌀을 대량적으로 일본에 실어갈것을 내용으로 한 날강도적인 략탈 계획이였다. 이 계획에 따라 일제는 19 27년부터 1931년까지의 기간에만 도 우리 나라에서 660여만석의 쌀을 략탈해갔으며 그 량은 해마다 늘어났다. 일제의 악착한 쌀략탈책동으로 조선사람 들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다 못해 정 든 고향을 떠나 살 곳을 찾아 해외에로의 류랑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중세기적인 《총독정치》에 의하 여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 피해

와 손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지《총독정치》를 강행실시한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 국제사회계는 일본이 과거에 우리 인 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그

것을 정당화하려드는 파렴치한 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반성은 수치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자신을 리성적으로 재정돈하 는 과정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에 들어서는 과정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 들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하

루빨리 과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판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 7 3 - 2 3 1 2, 편집국 3 7 3 - 1 3 2 8, 론설원실 3 7 3 - 5 4 2 8, 당력사교양부 3 7 3 - 5 5 2 8, 당생활부 3 7 0 - 4 5 2 8, 사회주의교양부 3 7 2 - 3 5 2 8, 제 1 3 0 0 3 호)(취급승인 제 3 호)공업부 3 7 3 - 0 2 6 3, 농업부 3 7 3 - 5 6 2 8, 과학문화부 3 7 2 - 4 6 2 8, 조국통일부 3 7 2 - 4 8 8 2, 국제부 3 7 3 - 4 7 2 8, 사진보도부 3 7 3 - 0 7 1 2, 특파기자부 3 7 2 - 4 3 2 8. 7-411527 편 집 위 원 회